

제 31권 4호

2025년 10~12월호

진리의 기둥과 터

Pillar and Ground of the Truth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

연말기도주일, 2025년 12월 5일 ~ 14일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편집부

우리 대부분은 에디오피아의 영향력 있는 인물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빌립이 겪었던 일을 잘 알고 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행 8:26~31, 35).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항상 생각하는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은 빌립과 같은 선교사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많은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한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망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간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 서서, 오직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 천사가 빛을 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에게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오늘날도 천사들은 성령께서 저희 허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정결하고 고상하게 하도록 허락하는 일꾼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빌립에게로 보내심을 받은 천사가 직접 에디오피아 사람을 위해 일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초기의 제자들에게 주셨던 임무를 각 시대의 신자들이 분담하여 왔다.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세상에 전할 거룩한 진리가 주어졌다. 하나님의 충실한 백성들은 언제나 적극적인 선교사들로서 자신의 자원을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재능을 그분을 섬기는 데 지혜롭게 사용해 왔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무아적인 수고는 우리에게 한 실물교훈이 되고 영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은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 세속적인 야망에서 떠나 선을 행하셨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 그들은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죄인들에게 구주의 사랑을 알게 하여야 한다. 그와 같은 일은 힘든 것이긴 하지만 풍성한 보상을 가져다줄 것이다. 진실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영혼들이 구주께로 나오는 것을 볼 터인데, 이는 거룩한 사명을 실제로 수행하는 데 따르는 능력을 저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명을 성취해야 할 책임은 안수받은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동료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주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수함으로 성직에 성별함을 받지 아니한 많은 사람들도 그분의 포도원으로 보내실 것이다.” -사도행적, 109, 110.

“빌립과 에디오피아인의 경험에 주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사업이 나타나 있다. ... 세상에는 성경을 읽고 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남녀들은 이런 영혼들에게 말씀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교회증언 8권, 58.

만약 그대가 이러한 지식으로 축복받았다면, 그대도 그들 중 하나이다! 

떠날 준비

또 한 해가 지났다. ... 산 자의 땅에 우리가 여전히 거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도 우리에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허락하셨다.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하자. 연말 기도 주간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귀중한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동료 신자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풍성한 기회를 제공 한다. 올해 우리는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사명, 곧 온 세상에 현대 진리를 전파하는 사명에 집중할 것이다. 이 사명이 빨리 이루어질수록 모두에게 더 좋다!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우리 대장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전진하라. 새로운 영토로 들어가라. 깃발을 높이 들고, 모든 곳에 기념비를 세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지성을 구속하는 그분의 법을 가지고 계심을 잊지 않는 백성이 이 땅에 있음을 알리라.” -호주 연합회 기록, 1900.1.1.

“온 세상으로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이 중요한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낭독문들을 읽을 때, 우리의 기쁨은 더욱 넘칠 것이다. 이 낭독문들이 주는 놀라운 축복을 고립되어 있거나 집에 붙들려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다음 날짜들을 기억하도록 하자.

금식 기도일: 12월 13일 안식일

선교 연금일: 12월 14일 일요일

이번 기도 주간을 통해 우리 각자가 세상의 어둠을 쫓고 빛의 도구로서 신실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으로부터 한 백성을 높이 들리운 영원한 진리의 토대,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인도하고 계신다. 그분은 그분의 백성을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신다. 그들은 의견이 일치할 것이다. 곧 이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은 전적으로 그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신앙과 견해를 견지하고, 각자가 몸으로부터 독립하여 움직이는 불일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 두신 다양한 은사들과 다스림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신앙의 일치에 이를 것이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29.

책을 열며 2

2025년 연말기도주일

12월 5일 금요일
우리의 높은 부르심 4

12월 6일 안식일
벽난롯가에서 9

12월 7일 일요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14

12월 10일 수요일
큰 길과 산울가로 19

12월 12일 금요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25

12월 13일 금식 안식일
봉사하기 위해 태어나고 양육됨 30

12월 14일 일요일
제자를 삼음 35

2025년 기도력 41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12월 5일 금요일

우리의 높은 부르심

엘렌. G. 화잇 저서로부터 발췌함

“봉사의 제단에 모든 것을 바치라는 부르심이 각 사람에게 온다. 우리 모두는 엘리사가 봉사한 것처럼 봉사하라는 요구를 받지도 아니하였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팔라는 명령을 받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애의 첫 자리를 그분의 봉사 사업에 바치고 하루라도 세상에서 그분의 사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 무슨 일을 하지 않고는 보내지 않도록 하라고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종류의 봉사를 기대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사업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물을 바치도록 요청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헌신을 받으신다. 필요한 것은 생애와 그 모든 재물을 봉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신한 사람들은 하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정해 주신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하여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이든지 의사이든지 상인이든지 농부이든지 전문가이든지 기술자이든지 그에게 책임이 지워져 있다.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할 일이다. 그가 종사하는 모든 사업은 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 선지자와 왕, 221, 222.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다른 사람을 돕기 시작하기 전에 먼 곳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어디서든 바로 시작할 수 있다. 기회는 모든 사람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 즉 자신의 가정과 이웃에서 해야 할 일을 시작하라. 다른 사람들이 그대에게 행동하라고 재촉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그분께 대한 그대의 개인적인 책임을 염두에 두고 지체없이 전진하라. 마치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행동하라. 다른 사람이 준비되었는지 보지 말라. 그대가 진정으로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도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진리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며, 어둠 속에서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누구나 무언가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 ‘내 집안일, 내 자녀들이 내 시간과 수단을 요구한다’라고 말한다. 부모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주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한다. 자녀들은 주님의 가족의 어린 구성원이다.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도록 인도받아야 한다.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

타적인 봉사를 돕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자녀들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 자녀들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짐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짐도 나눠 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신의 행복과 유용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리뷰 앤 헤랄드, 1902.7.29.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들의 생활로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들이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 일을 이루어 주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이 복음의 원칙들을 믿고 실천할 때만 그분께서 그들로 칭찬받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그분의 사업에 사용할 때만 그들은 교회가 서도록 부름을 받은 약속의 충만함과 능력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노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단지 세상의 낮은 표준에 만족한다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일에 실패할 것이며, ‘부족함이 보였다’는 말이 교회의 기록에 쓰여질 것이다. ...

제자들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오기를 기다리지 말아야 했다. 그들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죄인들을 찾아서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야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그들의 활동의 무대로 그들 앞에 열어 놓으셨다.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막 16:15) 해야 하였다. 그들이 전파해야 할 것은 구주에 관한 것, 그분의 이타적인 봉사의 생애, 그분의 치욕의 죽음, 그분의 비할 데 없고 변함없는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은 그들의 표어, 그들의 연합의 띠가 될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으로 그들은 죄의 요새를 정복할 것이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특징지을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더 한층 자세한 지시를 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행 1:8; 눅 24:49)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여기서 그들은 열흘 동안 마음을 깊이 살피는 날들을 보냈다. 그들은 모든 불화를 버리고 그리스도인 친교로 가까워졌다.

열흘이 마치는 날 주님께서서는 그분의 영을 놀랍게 부어 주심으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행 2:2~4, 41).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들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20). 제자들이 당한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에 천국 복음은 사람이 거주하는 지구의 모든 지역으로 전해졌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또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앞에 높이 들려져야 한다. 주님께서서는 목사와 교사와 전도자들을 부르신다. 그분의 종들은 집집을 다니며 구원의 기별을 전해야 한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용서의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무기력하고 활기 없는 말로 기별을 전할 것이 아니고 분명하고 결정적이고 감동적인 말로 전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피해야 할 경고를 기다리고 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교의 능력의 증거를 보고자 한다. 단순히 소수의 장소에서만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자비의 기별자가 필요하다. 모든 나라에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부르짖음이 들린다. 부자와 가난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들이 빛을 요구하고 있다. 남녀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에 굶주려 있다. 그들이 위로부터 온 능력으로 전해진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은 그 잔치가 그들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깨닫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눅 14:17)라는 초청에 응할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는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생

명을 얻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임명을 받았다. 그분께서 잃어버린 자의 구원을 위하여 느끼셨던 것과 똑같은 영혼에 대한 열망이 그들에게서 나타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지위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걸맞는 지위와 사업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실제적인 봉사를 통하여 반응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모든 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변함없는 약속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위탁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준비를 하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사업의 성공에 대한 책임을 몸소 담당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한, 그들은 실패할 수가 없었다.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지구의 가장 먼 곳으로 가라. 그러나 나의 임재가 그 곳에도 있을 것을 알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일하라. 내가 너희를 버릴 때가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영속적인 임재에 대한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시간의 경과가, 그분께서 떠나시면서 하신 약속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 나는 이 일에 그대들과 함께 하여 그대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대들의 극기와 희생의 사업에 성공을 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불순종에서 의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나의 빛을 통하여 그들은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의 반대를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신뢰하라. 내가 그대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그리스도께서 오로지 그분을 위하여 생애하는 자들을 소중히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대들은 그분께서 사랑받은 요한처럼 그

분을 위하여 힘들고 어려운 장소에 있는 자들을 방문하신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분께서는 그분의 충성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교통하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리고 능력이 탁월한 하나님의 천사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분의 일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는다.

하나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목사에게 좁은 길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업을 맡기셨다. 그는 자신의 활동에서 지혜롭고 열성적이어야 한다. 매 해 연말에 그는 뒤를 돌아보고 그의 활동의 결과로 구원받은 영혼들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불에서 끌어내어 …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유 23; 딤후 1:9) 두려움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해야 한다.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명령은 오늘날의 목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 앞과 …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딤후 4:1, 2).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찾는 책임을 맡기신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업을 모든 사람에게 맡기셨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감사의 말들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모두가 담당할 수 있는 봉사이며, 주님께서서는 그것을 그분께 바쳐진 것으로 받으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을 효능 있게 만드셔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은혜를 열심 있는 일꾼에게 나누어 주신다.

주님께서 이루어져야 할 진지한 사업이 있음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 주기를 바라신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그분께서 기억해 주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홀로 일하도록 버려지지 않는다. 천사들이 그들의 조력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실하고 끈기 있게 활동해야 한다. 만일 용기를 잃지 않으면 그들은 때가 되면 거둘 것이다.” -교회증언 8권, 14~18.

자급 전도자

“많은 지역에서 자급 전도자들은 성공적으로 일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온 세계에 퍼뜨리기 위하여 활동한 것은 자급 전도자로서였다. 날마다 아시아와 유럽의 큰 도시들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편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동료들의 생계를 위하여 수공업(手工業)에 종사하였다.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남긴 그의 고별의 말은 그가 일한 방법을 알려 주고, 모든 복음의 역군들을 위한 귀중한 교훈을 남겨 준다.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는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18~35).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동일한 자아 희생의 정신으로 고무되었을 것 같으면 유사한 방법으로 선한 사업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전도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라. 그들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노래하고, 가르치고, 성경을 해석하고, 병자들에게 봉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문서전도자로서 자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사도처럼 어떤 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분야의 활동을 통하여 일할 수 있다. 그들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앞으로 전진할 때, 그들은 복된 경험을 얻는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앞서가시며, 그들은 부요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서 호의와 도움을 발견하게 된다.

외국에서 의료선교사업을 하도록 교육받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서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면서 언어를 배우도록 권장되어야 한다. 미구에 그들은 단순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될 것이다.

세계의 전역에 자비의 사자들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흑암과 오류가 덮여 있는 지역사회로 들어가고, 외국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동료 인간들의 필요를 깨닫고,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일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만일 그런 가정들이 세상의 어두운 장소, 곧 영적 흑암이 덮여 있는 곳에 정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그들을 통하여 비추게 되었을 것 같으면 참으로 고귀한 사업이 성취되었을 것이다.

이 사업은 자아 희생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저들이 이룰 수 있었던 사업은 완성되지 못한 채 남아 있고, 많은 무리들은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죽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상업상 혜택을 위하여, 혹은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불안정한 지역으로 들어가 희생과 어려움을 기꺼이 견디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동료 인간들을 위하여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즐거이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적은가!

사람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의 위치와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그들을 가르치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그들을 도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봉사이다.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하여 그대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접근할 문을 열게 될 것이다.

그대의 모든 사업에 있어, 그대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곧 생명을 주는 물결이 그대의 생애를 통하여 흘러나야 한다.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그분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자 노력할 때, 그대의 순결한 언어와 그대의 이기심 없는 봉사와 그대의 기쁨에 넘치는 태도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자. 그분을 순결하고 의롭게 세상에 나타내므로 사람들이 그분을 매력 있게 바라보게 하라.

우리가 나쁜 습관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공격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개혁하고자 시도하는 일은 별반 소용이 없다. 그런 노력은 유익보다는 흔히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의 우물을 멀리하는 대신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제시하셨다. 그분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요 4:10)’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신 보화로 화제를 돌

려 그 여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곧 복음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생수까지 제시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일할 방법을 알려 주는 하나의 예시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의 평강까지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소원의 표현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말해 주어야 한다. 영원한 하늘의 영광이 덧없는 세상의 기쁨과 쾌락에 비하여 어느 정도로 초월한 것인지 그들에게 보여주라. 구주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자유와 안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라. 그분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4:1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높이 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요 1:29)고 부르짖으라. 오직 그분만이 마음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고 심령에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개혁자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이타적이고, 가장 친절하고, 가장 예의가 발라야 한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타적 행위의 미덕이 나타나야 한다. 예의의 부족을 나타내고, 다른 사

람들의 무지와 고집에 대하여 참을성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빨리 말을 하거나 생각없이 행동하는 일꾼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므로 그들과 결코 접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오류에서 돌이키고자 할 때는 이슬과 조용한 비가 시들어가는 식물 위에 내리는 것처럼 말이 부드럽게 흘러 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생애의 개혁을 위하여 그 진리에 능력을 주실 분을 신뢰하여야 한다. 성령께서는 사랑으로 하는 말을 심령에 적응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아 중심적이며 고집을 세우게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교훈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우리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므로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명하신 그리스도의 훌륭한 모본, 곧 측량할 수 없는 친절은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품성에 깊은 영향을 주어야 한다. 그들은 친절한 말과 행동으로 피곤한 발길을 편안하게 해 줄 길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154~157.



벽난롯가에서

미구엘 멘도사 - 호주

서문

“우리의 가정은 벤엘이 되어야 하고, 우리 마음은 성물함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소중히 간직된 곳에는 어디든 평화와 있고 빛과 기쁨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행복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신다.” - 믿음으로 살라라, 255.

1800년대, 특히 현대식 난방이나 전기가 보급되기 전 미국에서는 벽난로가 가정생활의 중심이었다. 가족들이 모여 따뜻함과 빛을 나누고 소통하는 장소였다. 화이트 여사는 청중들이 곧바로 친숙하고 의미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개인적, 관계적, 그리고 영적인 참여를 강조하기 위해 “벽난롯가에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따라서 화이트 여사에게 “벽난롯가에서”는 단순한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것은 친밀함, 신뢰,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빛에 따라 살도록 가르치고 세상 모든 사람과 그 빛을 나누기 위한 장소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교훈을 배워 보겠다.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내 고향은 일 년 내내 추운 곳이었지만 우리 집에는 벽난로가 없었다. 하지만 예배

시간이나 다른 행사 때 우리 집은 마치 “벽난롯가”에 있는 것처럼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어머니는 내가 아직도 사랑으로 기억하는 중요한 삶의 교훈들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 어머니는 잠언 22장 6절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라는 교훈을 따르셨다. 나는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그러한 교훈들이 내가 주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을 내리는 데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주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긴 약속들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유년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품성은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다. 그러므로 자제력을 이때에 길러야 한다. 벽난로 옆에서나 가족 모임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은 영원까지 지속된다. 어떤 타고난 재능보다도, 어린 시절에 형성된 습관이 인생의 투쟁에서 승리하게 하든지 패배하게 하든지 결정지어 준다.” - 새자녀 지도법, 202.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는 아브라함, 그의 믿음, 그의 결점들뿐만 아니라, 그가 집에 있는 사람들, 즉 그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 즉 그의 종들을 위해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듣게 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음과 같은 약속을 받았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

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창 12:3). 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되었을까? 창세기 26장 5절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고 증언한 주님의 길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일을 맡은 사람은 그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아내 사라가 그와 함께 있었고, 두 사람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동안 집안의 모든 사람을 세심하게 가르치며 “벽난롯가에서” 훌륭한 일을 해냈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봉사에 대한 보수보다도 더 높은 생각에 이끌린 사람들이 많았다. 하란에 머무르는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는 둘 다 다른 사람들로 참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도록 이끌었다. 이들은 부조의 권속의 일원이 되어, 약속의 땅으로 그와 같이 갔다.” -부조와 선지자, 127.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한 경험을 통해,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가족을 주님의 길로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부모와 가족

나는 사역을 하면서 여러 기회에 가족들을 방문하면서 “벽난롯가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중요한 시간을 가족이 함께 갖기 위해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있는지 지켜보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으며, 특정한 시간을 정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원수의 화살에 맞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높이 들어 올리는 의무를 다하고 있다. 가정이 가장 좋은 선

교지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자녀의 마음에 심어주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 선교 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가정 선교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가장 큰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며, 가장 큰 필요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깨닫기 시작할 때, 그들은 가정 선교 사업을 시작하고 자녀들을 천국을 위해 훈련시킬 것이다. 자녀들에게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할 것이다.” -리뷰 앤 헤랄드, 1891.4.21.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내의 가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린이들의 교육은 과거의 것과는 달라야 한다. 그들의 복지는 과거에 그들에게 주었던 보살핌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부모들은 교훈과 모범으로 자녀들에게 불신자들을 위해 수고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로 하여금 연로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하고 고민하는 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자녀들은 선교 사업을 열심히 하며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유익과 그리스도 사업의 진보를 위해 희생하며 극기하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이 일은 그들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한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진정으로 남을 위해 선교 사업 하는 법을 배운다 할지라도 먼저 가정에서 사랑의 직무를 수행할 천부적인 권리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모든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각자의 맡은 일을 하도록 훈련받아야 한다. 아이는 집안 일을 돕는 데 손을 쓴다든지, 심부름으로 달려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그리함으로 그는 태만과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을 것이다. 비록 어리지만 강한 어깨로, 누군가 져야 할 가정의 책임을 맡아 아버지와 어머니께 사랑의 관심을 보일 수 있는 수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어린이들은 허비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참된 건강 개혁의 원칙과 자기 몸을 돌보는 일에 바로 서 있어야 한다.” -교회 증언 6권, 429.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에서의 일을 부끄럽게도 소홀히 해 왔다. 이제는 이러한 악한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거룩한 능력과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때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분을 위해 일하도록 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겠는가?” -교회증언 6권, 430.

친애하는 부모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의 악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기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부절제라는 거대한 악이 우리 땅에서 맹렬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단은 청소년을 유혹하고 파멸시키기 위해 사방에 그의 대리인을 두고 있다. 경고의 목소리가 우리 난롯가에서 들려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교훈과 모범을 통해 청소년들이 높은 성취를 이루고 고귀한 목표와 거룩한 목적을 갖도록 이끌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 일은 가볍거나 작은 일이 아니며, 보람을 얻을 수 있는 일이다. 올바른 가정 교육을 받은 한 청소년은 자신의 인격 형성에 견고한 재목을 가져올 것이며, 그의 모범과 삶을 통해, 그의 능력이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그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도록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한 영혼의 구원은 많은 영혼의 구원이다.” -리뷰 앤드 헤랄드, 1888.7.10.

복음 교역자

예를 들어, 『복음전도』라는 책에서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호소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에게 권고한다.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기회를 이용하여 그대의 성경을 펴서 그들에게 성경의 위대한 진리를 소개하라.” -복음전도, 436.

주님을 위해 일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편안한 곳, 즉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만나 그 친밀한 공간을 통해 믿음을 나누도록 권고받는다. 난롯가의 분위기는 형식적인 설교나 공개 토론과는 대조적으로 편안하고 개인적인 교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는 데 있어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하는 접근 방식이 권장되며, 이는 실제적인 기독교와 개인적인 사역에 대한 더 폭넓게 강조하는 것과 일치 한다.

사역과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또 다른 중요한 호소는 “목회 사업에 종사하는 나의 형제들이여! 그대들의 문을 활짝 열고 시험 가운데 빠져 애쓰는 청년들을 받아들이라. 개인적으로 그들과 가까이 접촉하라. 죄악은 사면에서 그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들로 고상한 생애를 보냄에 도움이 될 만한 일에 취미를 갖게 하도록 힘쓰라. 스스로 그들을 멀리하지 말라. 그들을 가정에 초대하기도 하고 함께 가족 예배에 참여하도록 청하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가는 길을 빛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만한 매력적인 길로 만들도록 요구하시고 계심을 기억하자.” -복음 교역자, 212.

“나는 말씀과 교리를 전하는 목사들 앞에 큰 사업이 놓여 있고 무거운 책임이 그들에게 지워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충분할 만큼 가까이 접근하고 있지 않다. 그들의 사업은 너무도 보편적이고, 흔히는 너무 분산되어 있다. 그들의 활동은 그들이 활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로 집중되어야 한다.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들은 다만 사업을 시작한 데 불과하다. 그 후에 그들은 그들이 설교한 바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업에 욱 돌리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 그들은 모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고전 3:9).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 설교를 끝낸 것으로 목사의 일이 마쳐진 것은 아니다. 그는 그 때에 짐을 벗어 버리고, 실제적인 필요가 있지 않은 한 독서나 저술에 그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영혼들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난롯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간구하고 간청해야 한다.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사업은 미구에 마쳐지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계 22:12) 주실 것이다.” -교회증언 1권, 432.

“이렇게 난롯가에서 하는 노력, 즉 가정 사역이 놀라운 성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목회 사역에 종사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라. 우리 목사들 중에는 이런 수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이런 수고를 피한

다.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에는 십자가가 따르지 만, 사람들이 인기 없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해야 하는 수고이다.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과 이렇게 가까이 접촉할 때, 우리의 빛은 더욱 효과적으로, 어둠 위에 직접 비출 수 있으며, 그들은 우리의 태도, 대화, 엄숙하면서도 쾌활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하늘의 평화가 그들의 가정에 임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처럼 축복된 결과를 가져오는 진리에 이끌리게 될 것이다.” -원고 모음 7권, 37.

다음은 1883년 11월 9일 미시간주 배틀크릭에서 열린 오전 회의에서 총회에 모인 목사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이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을 돕기 위해 우리를 그분의 종으로 삼으신 것은 얼마나 거룩한 신뢰인가?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 세상을 향한 가장 엄숙하고 시험적인 기별을 맡기셨다. 우리의 의무는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사람들의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고, 난롯가에서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우리는 맡겨진 재능을 기술과 지혜로 사용하여 가장 기쁜 방식으로, 영혼을 구원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진리의 귀중한 빛을 제시해야 한다.” -리뷰 앤 헤랄드, 1884.4.15.

현신적인 그리스도인

주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즉시 순종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19, 20).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그에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목사들이 진리의 씨를 뿌리는 사업의 대부분을 말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다. 복음 사업에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여러 가지 재능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일하도록 격려를 받아야 한다. 오늘날 게으른 상태에 놓여 있는 수많은 남녀들이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다.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가정에 진리를 전함으로써 주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할 수 있

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마음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집집 방문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하라. 그러한 사람들이 만일 겸손하고, 신중하고, 경건할 것 같으면 그들은 난롯가에 앉아서 가정들의 진정한 필요를 채우는 데 있어서 목사가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구호봉사, 109.

이 중요한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난롯가는 복음과 가족, 신앙, 그리고 전도에 대한 교훈을 나누는 자연스러운 무대가 된다.

“사랑과 성실함으로 집집마다 진리를 전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파송하실 때에 주셨던 교훈을 따르는 것이다. 찬양의 노래와 겸손하고 성실한 기도로써 많은 사람을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거룩한 일꾼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임재하실 것이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러한 조력자가 항상 함께하심을 확신하고 우리는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4.

그렇다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 아래까지 인도하는 겸손한 도구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개인적인 노력이다. 가정과 이웃의 난롯가에서 또는 환자의 침상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어 주며 예수님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로써 여러분은 짝이 트고 열매를 맺을 귀한 씨앗을 뿌릴 수 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118.



하나님의 호소

오늘 우리가 공부했듯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가 “벽난롯가”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 교회로서 우리는 영적인 일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사적인 순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난로 옆의 딱딱한 형식적인 환경에서 벗어나 관계를 쌓고 믿음과 진리의 씨앗을 심는 최적의 장소이다. 사랑하는 개혁 운동 가족 여러분, 이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다음과 같은 호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모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으로서 기꺼이 섬길 수 있도록 자신의 피와 자기 부정, 희생, 그리고 고난의 값을 치르셨다. 만약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맡겨진 재능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책임감을 느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소득이 돌아가게 될지 모른다! 한 재능은 사용하면서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가장 낮은 재능이라고 여겨지는, 가장 낮

은 봉사조차도 더 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금, 지금, 지금이 우리가 일하기에 가장 좋은 때이다. 개인적인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가정에 진리를 전하고,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모든 난롯가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 성령께서 일하시는 분임을 명심하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인간 대리인은 혼자가 아니다. ...

인내와 부드러움, 연민, 기도와 사랑으로 수고하는 것은 설교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아직 목격하지 못한 더 큰 일들을 계획하셨다. 성령께서는 일하실 통로를 기다리고 계신다. ... 사단이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릇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는 즉시 교회에 부어질 것이다.” -그분을 알려 하여, 330.

주님께서 우리를 풍성히 축복하시고 우리가 벽난롯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 아멘! 🙏

12월 7일 일요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오지엘 페르난데스 - 브라질

봉사와 그리스도인의 동정심으로의 부르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을 촉구하는 깊은 울림을 준다. 마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잘 알려진 보리떡과 물고기의 첫 번째 기적 이야기에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상징적인 기적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 외에도 동정, 관대함,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봉사에 대한 근본적인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러한 교훈들은 오늘날 교회가 기아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세상에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촉구한다.

지금 당면한 기아

오늘날 기아는 전 세계적인 심각한 문제이다.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만 전 세계에 약 7억 3,300만 명이 기아로 고통받을 것이라고 한다.” (<https://www.wfp.org/publications/state-food-security-and-nutrition-world-sofi-report>). 전 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이 수치는 사회적 불평등, 경제 위기, 무력 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전 세계적으로 생산되는 식량의 양과 극명하게 대조되는데, 이는 문제가 자원 부족이 아니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행동이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도록 이끄셨다. 오늘날 수백만 명의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기별은 고통받는 사람들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제자들의 공동 책임임을 지적 한다.

성경적 맥락

떡을 많이 하신 기적은 침례 요한의 죽음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일어났다. 요한의 죽음으로 제자들이 지치고 슬퍼했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휴식을 취하셨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마 14:13[상단]). 그리스도께서 쉬라고 초대하신 것은 제자들을 향한 목회적 보살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리가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알고 걸어서 따라오면서, 그토록 바라던 휴식은 곧 중단되었다.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 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막 6:33).

“유월절이 가까웠으므로 인근 각처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수는 점점 증가하여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가 오천명이나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해변에 도착하시기 전에 한 무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대의 소망, 364.

무리를 향한 동정심

사랑이 많으신 구주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데 결코 주저하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환영하시며,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신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 주시니라”(마 14:14).

신약성경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관련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가장 높은 수준의 동정심을 가리킨다. (마 15:32; 20:34; 막 1:41; 눅 7:13 참조)

예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돌보지 않으시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비록 안식에 방해받을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은둔처를 떠나 그들을 돌보기 위해 세 가지 일을 하셨다.

1.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2.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그들의 육체적 필요를 채워 주셨다.
3. 하늘의 떡을 상징하는 떡으로 무리 전체를 먹이셨다(요 6:22~40).

이렇게 하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채워 주셨다.

제자들의 걱정

바쁜 하루였다. 예수님께서는 무리 가운데서 병자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지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무리를 먹일지 걱정하고 있었다. 상황을 깨달은 제자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우려를 표하며 주변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사람들을 보내 달라고 제의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막 6:35,36). 제자들은 무리에게

먹을 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예산에 없는 일이었고, 무리를 돌려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었다. 모든 것이 어려웠다. 장소는 외딴 데 있었고, 시간도 늦었고, 무리는 많았고, 돈도 충분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부족함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을 역설했다.

그리스도의 명령

제자들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같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 14:16)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고 당혹스러웠기에 제자들은 세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다.

1. 무리가 많았다.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도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2. 그들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 있었고 먹을 것을 살 곳도 없었다.
3. 돈이 부족했다.

제자들은 분명히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물자 부족, 자원 부족, 그리고 배고픈 군중 때문에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 남지 않은 빵을 그리스도의 손에 드리기로 했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마 14:18) 하셨기 때문이다. 그 적은 빵이 기적적으로 불어났고,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되었다. 이 기적은 하나님께서는 제한된 자원으로도 기꺼이 섬기려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던, 교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돌볼 책임이라는 원칙을 일깨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주린 자에게 네 식물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사 58:7)라고 명령하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셨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

“그러나 필요는 큰데 우리 수중에는 너무나 적은 재정밖에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자주 우리 마음은 무거워지고 믿음은 약해지는가. 다섯 개의 보리떡과 두 마리의 작은 물고기를 쳐다보던 안드레처럼 우리는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하고 부르짖는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기를 싫어하고 남을 위하여 쓰거나 쓰여지도록 하기를 꺼리고 망설이는 때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그리고 그 명령의 배후에는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신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시대의 소망, 369.

교회의 사명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단순히 물질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람들의 영적, 정서적,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켜주라는 부르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이 무리를 돌보는 책임을 회피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으며,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이 지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오천 명을 먹이신 이적 중에는 수확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연계의 장막을 찢히시고, 우리들의 유익을 위하여, 언제나 끊임없이 발휘되고 있는 창조력을 나타내 보이셨다. 떡을 여러 배로 불어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뿌려진 종자를 불어나게 하는 일에 날마다 이적을 행하고 계신다. 그분께서 땅의 추수 밭에서 수확을 거두시며 무수한 사람들을 늘 먹이시므로 매일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곡식을 돌보고 떡을 준비하는 일에 그분과 협력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요구에 응하는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의 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들을 자연의 힘이나 사람이 취한 방법의 효과로 돌리며, 그분의 선물을 이기적인 용도를 위해 악용하여 축복 대신에 저주를 받는 일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들을 고치고자 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둔한 감각이 깨어나 그분의 자비로운 친절을 분별하고, 그분의 은사가 그분이 의도하신 축복이 되기를 원하신다.

종자에 생명을 주는 것은 생명을 나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곡식을 먹는 중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는 일에만 그치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 더 그분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고 계신다.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칙을 보면, 원인에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곡식을 거둔다는 것은 먼저 종자를 뿌렸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어떤 가식도 용납되지 않는다. 사람은 혹 동료를 속이고 자기가 한 적이 없는 어떤 봉사 행위에 대하여 칭찬과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천연계에서는 어떤 속임도 용납될 수 없다.” -교육, 107, 108.

“수확할 때에, 씨앗은 여러 배가 된다. 한 알의 밀알은 여러 번 거둬 뿌려지는 중에 번식하여, 드디어 온 땅을 황금빛 단으로 덮어 버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단지 한 사람의 일생, 또는 한 가지 행위의 영향력도 널리 퍼질 수 있다.” -교육, 109.

떡과 물고기가 많아진 기적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면서, 우리는 예언의 신에서 다음과 같이 읽는다.

“배고픈 군중의 현실적 필요를 공급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에는 그분의 모든 교역자들을 위한 깊은 영적 교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며 제자들은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무리들은 상호간에 나누어 주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다 그분에게서 하늘의 양식인 생명의 떡을 받아 그것을 남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시대의 소망, 369.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굶주림은 더 넓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정의, 평화, 사랑, 그리고 희망에 굶주려 있다. 교회는 위기에 처한 세상에 영적, 정서적 자양분을 제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사도 야고보는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이 진리를 강화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혈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

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약 2:15,16).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의 첫째 서신에서 이렇게 묻는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보냐”(요일 3:17).

오늘날 세상은 의미, 소속감, 그리고 희망을 찾는 “굶주린 군중”으로 가득하다. 교회는 생명의 떡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기별을 전할 준비가 된 관대한 공동체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불어남을 위한 우리의 역할

기아와 같은 세계적인 문제의 심각성에 압도당하기 쉽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여 우리는 제한된 자원으로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떡을 늘리게 해서 먹이신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배가되어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주님께 받은 것을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자에게는 현세적 축복과 영적인 축복이 함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피곤하고 배고픈 오천 명의 무리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백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장소를 택하시고, 그들로 앉게 하셨다. 그리고 떡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취하셨다. 그 빈약한 것으로 배고픈 오천 명의 남자들에게와 여인들과 아이들을 더한 그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많은 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축사하시고 제자들의 손에 놓으시고 나누게 하셨다. 그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음식은 그들의 손에서 불어났다. 무리가 먹은 후에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늘이 주신 양식을 먹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귀한 교훈이 된다.” -교회증언 6권, 263.

과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축복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바라신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백성들 사이에 있는 소통의 통로였다. 이 사실은 오늘날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큰 용기를 줄 것이다. 그리스도는 위대

하신 중심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저희의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아무리 지혜가 많고 아무리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라도 받을 때에만 베풀 수 있다. 그들 스스로는 영혼의 필요를 위해 아무것도 공급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만을 전할 수 있다. 계속 남에게 나눠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받는다. 나눠줄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함으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믿고 의지하고 받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 -시대의 소망, 370.

전 세계의 기독교 기관, 선교사, 자원봉사자들은 이미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삶을 헌신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을 실천하고 있다. 굶주린 사람들을 위한 식량 계획부터 교육, 건강, 기본적인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업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준다. 우리 눈에 사소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위대한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풍요로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은 그리스도의 손에서 불가능을 성취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행동으로의 부르심

전 세계의 제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요청은 오늘날에도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그분께서는 특히 전 세계적으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신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기아는 여전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전 세계의 이러한 행동으로의 부르심은 작은 행동으로 시작될 수 있다. 격려의 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는 것, 또는 우리 지역 사회의 육체적, 영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회 내에 사회복지 센터를 설립하는 것일 수도 있다. 우리는 세계 기아 문제의 긴급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동정심과 관대함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전 세계의 “예수님께서서는 사치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을 그분께로 이끌고

자 하지 않으셨다. 흥분되고 긴긴 하루를 보낸 후 피곤하고 배고픈 그 큰 무리에게 주어진 그 단순한 식사는 그분의 능력과, 일상 생활에서 그들을 돌보시는 그분의 사랑의 보증이 되었다. 구주님께서서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호화로운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운명은 빈곤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것이라고 보증해 준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세상의 물질보다 더 좋은 것, 곧 그분과 함께하는 영원한 위로를 약속하셨다.

무리들이 먹고난 후에도 많은 음식이 남았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요 6:12)고 명령하셨다. 이 말씀은 음식물을 광주리에 담으라는 말 이상의 뜻이었다. 그 교훈은 이중적(二重的)이었다. 아무것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현세적인 유익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인류의 유익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세상의 주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는 것은 모두 거두어들이라. 그와 꼭 같은 주의력으로 우리는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늘에서 온 떡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 치료봉사, 47, 48.

“제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봉사하라고 명령하셨다. 음식물은 그분의 손에서 불어났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뻗혀진 제자들의 손은 결코 부족함이 없었다. 조금 밖에 안되는 그 식물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였다. 무리들이 먹고 나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공급된 귀중한 음식을 먹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주 위축되는가?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의문을 품는다. ‘우리의 연약한 힘과 빈약한 자원이 이 큰 필요를 어떻게 채워 줄 것인가? 우리는 그 사업을 지도하기 위하여 더욱 큰 재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나 그 일을 맡아 줄 어떤 기관이 나오기를 기다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말씀하신다.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하라. 그대의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라.

비록 그대의 자원이 수천 명을 먹이기에는 충분하지 못할지라도 한 사람을 먹이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처럼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리스도께서는 그 선물을 증가시켜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정직하고 단순하게 의지할 때 값아 주실 것이다. 보잘것없는 공급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 것이 풍성한 잔치가 되었음이 입증될 것이다.” - 치료봉사, 49, 50.

결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말씀은 단순히 자선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책임감에 대한 부르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우리가 가진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떡과 물고기가 불어났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주변의 굶주린 무리를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먹이기 위해 우리의 노력과 자원을 불어나게 하실 수 있으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세상에서, 교회는 돌봄과 희망이 절실히 필요한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반영하는 동정심으로 이 부르심에 계속 응답해야 한다. 

큰길과 산울가로

다니엘 발박 - 미국

예수님께서서는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신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라고 말하게 했다. 그러자 모두 한목소리로 핑계를 대기 시작했다. 첫째 종이 “나는 밭을 샀으매 불가불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둘째 종이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말했다. 셋째 종이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라고 말했다. 이에 그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렸다.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에게 말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16~23)

이 만찬에 초대받은 처음 두 무리는 누구이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제공되는 축복을 설명하고 계신다. 준비된 음식은 곧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양식인 동시에 그분에게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온다. 주님의 사자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미 구주의 초림

에 대하여 예고해 왔으며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이라고 지적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준비하신 잔치에서 하늘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의 선물 곧 그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 ‘나는 하늘로써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 6:51)고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실물교훈, 222, 223.

위의 인용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아름다운 점을 이해하게 된다.

1. 이 초대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이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한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9).

2. 하나님의 종이자 세상을 위한 기별자인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떡, 곧 그리스도 자신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도록 초대할 특권을 가지고 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요 6:35).

유대 민족은 자신들의 영적 상태 때문에 초대를 거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계 3:17)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초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주인은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

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한다. 이것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면, 거리와 골목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절름발이이고 눈먼 사람들일 것이다.

“가난한 자들과 소경들을 데려온 종은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보고한다. 그러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명했다.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민족 이외의 지역, 곧 세상의 거리와 골목에서 복음 사업이 추진될 것을 가리키셨다.” -실물교훈, 226.

이 비유에서 언급된 마지막 두 부류, 곧 길과 산울 가로 언급된 사람들은 어떠한가? 영감은 이 부류를 세상 사람들, 즉 우리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다.

최근 여러 교회에서 진행된 선교사 훈련 모임에서 나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는 우리의 노력-혹은 그 부족함-을 강조했다. 한 수업을 시작할 때, 나는 학생들에게 주변을 둘러보고 지난 5년 동안 교회 밖에서 새로 온 신자가 몇 명인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최근에 “세상”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은 한두 명뿐이었다. 이것은 우리 각자에게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다가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시는 큰 잔치에 초대하고 있는가?

우리는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세상에서 내가 누구에게 다가가야 할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 우리는 교육 수준이 높거나 부유하거나 전통적인 그리스도교의 가르침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있는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선택, 최악 된 생활 방식, 또는 문화적 관점 때문에 종교 공동체와 거리를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교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옳지도 않고 적절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은 넓은 지역의 봉사를 고려할 때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복음의 잔치에 초대받은 첫 번째 그룹인 “큰길”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 영감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



큰길

“잔치에 오라는 초청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들은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 복음의 초청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낼 때에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이 진행된다. 이 기별은 먼저 ‘큰길’, 곧 세상 사업에 크게 활약하는 자들과 백성들의 교사와 지도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주의 종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도록 하라. 이 말씀은 양 무리의 목자들, 곧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교사들이 마땅히 명심해야 할 말씀이다. 상류 계층에 속한 사람들을 친절한 애정과 형제 우애로 찾아야 한다. 실업계에 있는 사람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뛰어난 발명력과 과학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들과, 현 시대에 대한 특별한 진리를 받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이 초청의 기별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므로 그들에게 이 초청의 말씀이 주어져야 한다.

부자들을 위해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은 하늘의 선물을 위탁받은 자로써 저희의 책임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들로 하여금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실 자와 반드시 회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부자들을 위해 일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 부자들은 자기의 재물만을 믿고 닥쳐올 위험을 생각지 않는 경향이 너무도 많다. 그들의 마음의 눈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에 이끌리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세상에서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과, 재물과 직업적인 면에 명망이 뛰어난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그들의 구원 문제를 말해 주는 일은 극히 드물다. 많은 그리스도인 교역자들이 이러한 계급의 사람들에게 접근하기를 꺼린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물교훈, 229, 230.

나의 아버지의 친한 친구 한 분이 이 부류에 속해 있었다.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여전히 “세상에 속한” 상태였다. 하지만 신앙을 갖고 성경 교역자가 된 후 아버지의 친구 분께 다가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친절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집을 방문하여 저녁 식사를 하곤 했다. 우리의 우정이 계속되면서, 나는 주님께 불가지론자인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했다. 내가 그분의 집을 방문하면 그분은 취미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셨기에, 나에게 도자기 물레와 가마를 보여주곤 하셨다. 그분은 여러 번 나에게 함께 도자기를 만들지 않겠냐고 물었지만, 나는 도자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거절했다. 그러는 동안 나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던 중 도자기를 함께 만들자는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신사분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처음 그곳에서 우리는 함께 멋진 경험을 했고, 믿기 어렵겠지만 그리스도는 도공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방법을 나눌 수 있었다. 이 시간을 함께 보낸 후 나는 이곳저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었고 우리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다. 나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

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바라시는 분이므로 그들과 어울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그분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치료봉사, 143.

이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누군가의 신뢰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누군가와 더 가까운 우정을 쌓을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과 나는 여전히 친한 친구이며, 나는 그분이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라며 계속해서 진리의 씨앗을 심고 있다.

우리는 영감에 의해 그리스도께서 이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그분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가셨는지도 알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고 교양 있는 바리새인들, 유대의 귀족들, 로마의 집권자들로 더불어 교제하고자 노력하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초청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의 잔치에 참석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들의 취미와 직업에 친숙하시므로 그들의 마음을 얻어 그들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 부(富)를 보여주하고자 하셨다.” -치료봉사, 24, 25.

우리는 또한 “골목길”이나 “산울 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라는 명령을 받는다. 모세 시대부터 성경은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밋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여 배부르게 하라”(신 14:29)고 말씀하셨다. 영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빈천한 계층의 사람들은 등한히 하면서 위대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사자들에게 골목과 산울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에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셨다. 궁정(宮廷)안과, 큰 도시의 골목길과 시골 외딴 길에는 교회와의 연락이 전혀 없이 고적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한다” -실물교훈, 232.

편견을 버리다

10대 시절, 나는 기숙사비를 마련하기 위해 매

일 5시간씩 문서전도를 했다. 지도 선생님은 성 만찬의 비유에 나오는 좋은 원칙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 중 하나는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계층의 이웃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루는 부유층을, 다음 날은 중산층을, 또 다른 날은 가난한 동네를 방문해야 했다.

어느 날 가난한 동네에서 설문지를 돌리다가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다. 현관문 앞에 다다랐을 때, 나는 이 집에 사는 거친 사람들을 발견했다. 나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자랐기 때문에 특유의 냄새를 알아챌 수 있었고, 문을 열자 거실에서 한 무리의 남자들이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옷 색깔과 입고 있는 옷의 종류로 보아 갠단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설문 조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관심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문이 내 눈앞에서 쾅 닫힐 거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 남자가 참을성 있게 정청하는 동안 나는 내 손에 들고 있던 네다섯 권의 책을 모두 소개할 수 있었다. 내가 다 읽었을 때 그는 “잠시만요”라고 말하며 2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돌아와서 영적 서적을 가리키며 “저거 주세요”라고 말했다. 거스름돈을 주려고 하자(당시에는 책값이 10달러에 불과했으니까) 그는 “거스름돈은 가져가세요.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그 집을 떠나면서 나는 내가 배운 매우 소중한 교훈을 곰곰이 생각했다. 처음 그 집에 다가갔을 때 나는 몇 가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문이 열린 후 나는 “내가 왜 이 문을 두드렸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들이 관심도 없는 것을 나누면서 나와 그들의 시간을 낭비할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영혼에 대해 그런 선입견을 가지라는 말씀은 없다. 단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고 명령할 뿐이다(눅 19:10). 우리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설문에 대해 철저히 알고, 눈을 잘 맞추는 등 설문에 대해 중요한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깊은 인상을 주

었다고 생각한다. 아마도 그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또는 “이 젊은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내가 응원하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을 통해 씨앗이 심어졌고, 그도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가고 싶어했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나그네들과 버림받은 자들과 도덕적 능력이 연약한 불쌍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다. 종교에 대해 전혀 무관심한 것같이 보이는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에 안식과 평화를 갈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비록 그들이 매우 깊은 죄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저희를 구원할 가능성은 있다. ...

길을 잃은 불쌍하고 낙담하는 사람들에게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 주라. 비록 저희가 잘못을 저지르고 올바른 품성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는 기쁨, 곧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겉보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사단이 이용하고 있는 자들을 그분의 은혜의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분은 장차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들에게, 어떠한 사람도 고쳐서 깨끗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라. 주님의 식탁에 그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것과 그분께서 그들을 그 자리에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 주라.” -실물교훈, 233, 234.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격려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하여 위의 이야기 속의 사람처럼 사람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그분의 초대에 응답할 때 그분의 식탁에 앉을 자리를 주시기를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산울 가”에 있는 또 다른 사람

“산울 가”에 있는 한 소중한 영혼에 관한 또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나중에 내가 워싱턴 주에서 문서 전도자 계획을 지도할 때였다. 그 프로그램에는 데이지라는 여동생이 있었다(나는 그녀의 이름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녀는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외판원 활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어서 매우 신이 났다. 그녀는

영혼들을 전도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문서전도자들이 수입의 일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녀는 또한 선교 학교에 가는 데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문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 데이지가 매우 흥분하고 심지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평소에는 조용하고 차분한 편이었다). 알고 보니 데이지는 어떤 여성분과 멋진 경험을 했었는데, 책을 몇 권 사러 온 한 여성이 책값으로 돈이 가득 든 종이 도시락 가방을 주었고, 가방 안에는 다양한 액수의 지폐로 총 350달러가 들어 있었다. 놀라서 다른 문서 전도사들이 데이지에게 그 여성분이 부자냐고 물었다. 데이지가 대답했다. “아니요, 그녀는 정반대예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지도 않고요.” 그 순간, 나는 데이지를 돕기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고, 지역 목사님이 추후 연락할 수 있도록 그녀의 연락처를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데이지가 집의 위치를 알려주는 동안, 나는 낯아 보이는 집 건너편에 차를 세우고 문으로 걸어갔다. 현관에는 12살쯤 되어 보이는 맨발의 형클어진 어린 소녀가 데이지가 어머니에게 방금 판매한 책 몇 권을 보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는 가운데, 소녀에게 어머니에게 연락해 달라고 부탁하는 동안, 평판과 직업이 의심스러워 보이는 한 여성이 문으로 와서 내가 누구냐고 물었다. 데이지 자매를 위해 아낌없이 기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떠올랐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왜 이 여성이 데이지에게 그렇게 큰돈을 기부했을까? 그리고 왜 책이나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걸까?

곧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다. ... 나는 그녀에게 더 많은 책을 맡길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그녀가 받지 못한 책들이 있었고, 특히 그녀가 기부한 책이 충분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 목사님이 기도, 성경 공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녀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는지도 물었다.

그녀는 성경 공부 등을 위해 전화번호를 알려주지는 않겠지만 한 가지 이유로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녀는 데이지 자매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선교 학교에 가고

자 하는 그녀의 열망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한 부모로서 딸을 위해 똑같은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딸을 문서 선교계획에 받아주기를 원했다. 딸이 너무 어리다고 말씀드리면서도, 쉬는 시간에 다른 모임에 나갈 때 딸아이를 꼭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그녀는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돈(약 350달러)이 담긴 또 다른 종이 도시락 가방을 가져오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그날 저녁, 나는 일주일 동안 프로그램을 떠나야 했기에 데이지와 남은 담당자들이 그 소녀를 몇 번 데리러 가서 다른 방문에 데려갈 수 있었고,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니 시몬의 집에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마리아처럼 이 여자도 딸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주는 영원한 부를 얻을 기회를 얻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었다. 순례의 여정을 여행하며, 이전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과 남자처럼 샅길을 따라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나는 바리새인 시몬처럼 판단과 정죄로 가득한 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같은 자인가?”

“그 주인은 자기의 초청을 업신여긴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집과 토지가 없는 굶주린 자들을 초청하였다. 그는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과 준비된 축복을 감사할 자들을 초청하였다.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마 21:31)고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셨다. 비록 사람들의 배척과 멸시를 받는 몸이 가련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받지 못할 만큼 그처럼 비천하고 가련한 사람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근심에 눌린 자들과 지치고 압제 받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빛과 기쁨과 화평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깊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 - 실물교훈, 225, 226.

결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젊은이여

러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시겠는가? 복음의 초대는 온 세상,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계 14:6) 전해져야 한다. 마지막 경고와 자비의 기별은 온 땅을 그 영광으로 환하게 할 것이다. 모든 계층, 즉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모두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길과 산을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고 말씀하셨다. 이 부르심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자녀, 손자, 조카를 문서 전도자 프로그램과 선교 학교에 보내 담대함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받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도 지역 사회의 부유한 전문직 종사자, 어려움에 처한 이웃, 또는 믿음에서 멀어진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축복받고 소명을 다할 수 있다. 친절함, 실질적

인 도움, 희망의 말, 또는 단순히 공감하며 경청하는 것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라. 음식, 옷, 또는 영적 서적과 같은 자원을 사회에서 잊혀지거나 배척당하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교육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영원한 진리에 대한 사려 깊은 토론을 나누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어울림으로써 우리는 그들의 신뢰를 얻고 그들을 위대한 만찬에 초대할 수 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용하셔서, 조직적인 노력과 개인적인 증거를 통해 위대한 사명(마 28:19, 20)을 수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대한 만찬에 초대하며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아멘! 🙏



12월 12일 금요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리카르도 가이에 - 앙골라

“이는 제 마음에 그 겹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마 9:21). 이 말은 한 불쌍한 여자, 곧 12년 동안 그의 생애를 괴롭힌 질병으로 고생한 한 여자의 말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재산을 의사들과 치료에 써 버렸지마는, 다만 고칠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치료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 그의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만일 내가 그분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만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한 유대의 랍비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중이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막 5:23). 이 간절한 탄원은 부드럽고 동정심 많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그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을 향하여 즉시 출발하셨다.

그리스도의 주위에 무리들이 밀려왔기 때문에 그들은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군중을 뚫고 나가시는 중에 구주께서는 고통받는 여인이 서 있는 곳 가까이 이르셨다. 그 여인은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몇 번이고 애를 써 보았지만 헛수고에 불과했다. 이제 그 여자에게 기회가 왔다. 그녀는 그분에게 말할 길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는 주님의 진로(進路)를 방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분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된다는 말을 들었고, 단 한 번의 구원의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혼잣말을 하면서 앞으로 나갔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그녀가 서 있는 곳까지 오셨다. 그분께서는 그녀의 큰 필요를 아시고 그녀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계셨다.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그녀는 앞으로 손을 뻗어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데 성공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치유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접촉에 그녀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즉시 그녀의 고통과 질병은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전기가 흐르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그녀에게 완전히 나았다는 느낌이 왔다.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막 5:29).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해 진 그 여자는 12년의 오랜 세월을 통하여 의사들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단 한 번의 접촉으로 이루어 주신 위대한 신 치료자 예수님께 감사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였으나 감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군중 속에서 물러나려고 했다. 그 때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며,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셨다.

베드로는 놀란 표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무리가 웅위하여 미나이다’(눅 8:45)고 대답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압이다’ (46절) 고 말씀 하셨다. 그분께서는 부주의한 무리들의 우연한 접촉과 믿음의 접촉을 구별할 수 있으셨다. 누군가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만졌고 응답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 진상을 알고 자 질문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그분의 제자들과, 그 여인을 위한 교훈이 있었다. 그분께서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싶으셨다. 그분께서는 치유의 능력을 가져 온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 -치료봉사, 59, 60.

병상에서의 경험

1996년에 나는 심하게 아팠는데,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영적인 전통에 기반한 전통적인 의료 방식에 의존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립 병원이든 사립 병원이든 어디든 기꺼이 갔다. 다행히 밤낮으로 진료가 가능한 한 의료 기관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1년 넘게 머물렀다.

이 기관에서 권장하는 회복 과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생식을 하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강의를 듣는 것이 처방이었다. 거의 반년이 지난 후, 직원들이 처음으로 내 영혼의 치유에 집중한 후에야 비로소 생리적인 치유가 이루어졌고, 이는 내가 처음에 이 기관에 오게 된 두 가지 주요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나는 할머니와 함께 있던 젊은 환자와 같은 시간에 거기에 있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끔찍했다. 그녀는 위독한 상태에 있었고 움직이거나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했다. 인생의 마지막 날들 동안, 젊은 여성은 침대에 누워 극심한 건강상의 합병증을 겪으면서 보살핌과 지원을 받았다.

기도에 매우 열정적이셨던 할머니는 손녀의 무릎에 엎드려 흐느끼셨다. 젊은 여성은 거의 모든 주요 병원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고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병을 극복할 수 없었다. 마지막 수단으로 할머니는 “까

닭 없는 저주는 ... 이르지 아니 하느니라”(잠언 26:2.)는 성경 잠언에 따라 필사적으로 추론하면서 젊은 여성에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다. 그러므로 의사는 사단의 사업과 능력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마음의 질병은 어느 곳이나 만연되어 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질병의 10분의 9는 여기에 근원이 있다. 아마도 어떤 가정에서의 문제가 마치 케양처럼 영혼을 갇아먹고 생명력을 약화시키고 있는지도 모른다. 죄에 대한 가책은 때때로 신체 조직을 손상시키고, 정신의 균형을 깨뜨린다.” -교회증언 5권, 443, 444.[

현신적인 할머니의 간절한 호소는 젊은 여성의 마음에 분명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갑자기, 모두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환자는 자신이 삶에서 저지른,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항했던 매우 악랄한 행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젊은 시절의 그 행동 때문에 그녀는 마치 엄청난 저주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결국 이 신체적 질병으로 나타났다. 오랫동안 약으로 나을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상태는 악화될 뿐이었다.

이제 그 젊은 여인은 오랫동안 자신의 영혼을 괴롭혀온 죄악에 대한 진실을 직시하고 죄인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절실히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비극적인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었다.

이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

“의사는 자신이 치료하도록 부름 받은 수많은 정신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인간의 지혜와 능력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만일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는 고통 중에 있는 자를 도와줄 수 없고, 어려움을 악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것 같으면 그는 병들고 괴로운 마음을 도와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의 환자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그들의 모든 염려와 어려움을 무거운 짐을 져 주시는 위대한 분에게로 가져가도록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죄와 질병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관성이 있다. 어떤 의사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서 한 달도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는 그 사실을 무시할 수도 있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관찰하게 되고 정직하다면 죄와 질병이 서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의사는 민감하게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 그가 환자들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 그들을 무덤의 문턱에서 그들을 다시 살려냄으로써 그들의 신임을 얻었다면 그는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과 건강과 영혼을 파괴하는 습관을 갖도록 그들을 유혹하고자 애쓰는 것이 타락한 원수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그는 자아를 부정하고 생명과 건강의 법칙에 순종할 필요를 그들의 마음에 새겨 줄 수 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원칙을 심어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부드럽고 강한 사랑으로 그분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신다. 그분께서는 천연의 법칙을 세우셨으나 그 법칙은 전제적으로 강요되지 않으신다. 신체적 법이거나 도덕적 법이거나를 막론하고 ‘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모두 약속을 내포하거나 의미한다.” -교회증언 5권, 444.

그 시설의 한 젊은 여성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 그녀의 얼굴에 깊은 평화가 깃든 것을 볼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이 평화가 그녀의 내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하늘의 평화를 통해 온 것이었다.

얼마 후, 그녀의 몸 상태의 심각한 증상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지만 그때 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 저는 쉬어야 해요. 제발, 쉬어야 해요. 쉬어야 해요.”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통을 단순히 반항적인 생활 방식의 결과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는 사랑의 보살핌을 주시는 전능하신 분의 아름다움과 영원한 지혜를 깨닫고 안식을 취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그분의 부드러운 자비 안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온전함을 위한 그리스도의 계획

그리스도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영혼과 육체의

치유와 회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열망하신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장 단순한 문제부터 가장 복잡한 문제까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영적인 차원을 인정한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시 38:3).

과일, 채소, 깨끗한 물을 위주로 한 건강한 식단을 따르고, 운동, 휴식, 일광욕, 신선한 공기 등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 정신적, 영적 건강이다.

제한적인 식단을 따르며 종교적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많은 경우 영양 보충제를 추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심지어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운동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만, 허영, 정욕, 무관심, 타인에 대한 경멸을 먹고 살면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신체 운동(복음을 전하기 위해 걷고, 빨리 걷고, 뛰는 등 발로 뛰는 선교 활동)을 소홀히 한다.

그리고 여전히 몸과 정서적 건강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이는 옳고 그름이 아니다. 그러나 일, 사업, 학업에 몰두하는 이들의 지적 활동은 사실 이 세상에서의 이득과 쾌락에 대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야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들은 선교 활동이나 장애인, 병자, 죽음이나 재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같은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많은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되고,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신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겪게 된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의 진정한 근원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위대한 의원이신 예수님이시다. 인간의 정신과 그리스도의 정신의 연결은 정신, 영혼, 신경 세포, 중요 장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온 몸에도 활력을 준다. 이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아픈 몸을 치료할 수 있다.

원한의 쓴 뿌리 뽑기

나는 문서 전도사로서 대형 국립은행 인쇄소에서 강연을 해 달라는 초대를 받았다. 나는 그들에게 『정로의 계단』을 포함한 우리의 책들을 선물했다. 강연이 끝나자 부서장은 나를 사무실로 데려가더니 긴 머리에 빈혈이 있고 얼굴이 홍측하며 무릎에 종양이 있어 많이 불편한 상태로 다리를 저는 마른 청년 한 사람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가슴 통증과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물었더니 아버지와 어머니, 세 명의 남동생과 함께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중병에 걸려 결국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의 가장 절친한 친구 중 한 사람이 당국에 뇌물을 주고 시내에 있는 가족이 살던 집의 서류를 위조하여 법원에 그 집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온 가족을 거리로 내쫓았다.

이 불행한 가족은 이제 갈 곳이 없었고 친척들조차 더 이상 이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전혀 예상치 못했을 때, 한 분이 나타나 시장 옆에 있는 낡은 판잣집을 구해줬고, 그곳에서 그들은 빈민 생활을 시작했다.

이 좌절의 경험은 청년에게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의 세 형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고, 그의 어머니는 심리적 위기, 고혈압, 시력 상실을 겪었으며, 이 트라우마로 인해 한 형제는 간질을 앓고 있었다. 이 청년 역시 몸이 아프긴 했지만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건강이 약해진 그는 대학을 그만뒀어야 했고, 그를 고용하려는 회사도 없었다.

그때,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은행 지점장이 그에게 자기 부서에서 함께 일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류와 상자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맡겼다. 매달 말, 책임자는 월급을 받을 때마다 그 젊은이에게 조금씩 나눠주었다. 그 젊은이는 무릎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어찌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만, 재정이 부족해서 그날은 결코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렇게 나는 그에게 영혼을 치유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다. 그는 감사하며 그 책

을 가져가 읽었다. 일주일 후, 나는 그에게 그리스도의 용서를 소개했고,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그의 가족에게 불명예를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부탁했다.

“저와 제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토록 큰 불행을 안겨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물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맡기고 이 싸움을 주님께 맡겨달라고 간청했다.

얼마 후, 그는 마침내 용서하기로 했다. 나는 집에 가서 당시 의학을 공부하고 있던 아내에게 말했다. 아내는 양동이를 가져와 진흙을 준비하고, 마른 진흙을 몇 자루 더 넣고, 양배추와 양파도 조금 가져왔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청년의 집으로 가져갔다. 아내는 청년의 무릎에 진흙을 바르기 시작하며 예언의 신으로부터 해로운 음식을 금하고 신선하고 자연적인 식물성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우리는 그의 형과 어머니에게 약을 주고 있었다.

그렇다. 주님은 자연 치유법을 치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지만 회복 과정에서 핵심 요소는 종종 다음 사항들을 깨닫는 것이다.

“가장 흔한 죄악들 중 하나이며, 가장 유해한 결과가 따르는 하나의 죄는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품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나 복수심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들이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구할 것인가. 분명히 그들은 이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그러한 기도를 감히 입에 담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시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와 같은 동료 죄인들에게 원한과 악의를 품을 수 있겠는가!” - 교회증언 5권, 170.

지상에서 가장 특권 받은 사람들

우리는 세계 역사상 가장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성경과 예언의 신과 함께 가장 위대한 거룩한 빛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예언의 신에 담긴 가르침으로 보상을 받는 특별

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먹고, 입고, 관계를 맺고, 사업을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신다. 여기에는 최고의 정서적, 영적 지원이 담겨 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정교한 초가공 식품의 사용을 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세상과 과학적 주장을 피하기 위해 엄격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의 유일한 절대적 보장자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진정한 치유의 근원

“구주께서는 기적을 통해 인간을 위해 끊임없이 작용하여 그를 지탱하고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내셨다. 천연의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증진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매일, 매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신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연의 활동이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질병, 고통, 죽음은 적대적인 세력의 소행이다. 사단은 파괴자이고 하나님은 회복자이시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육체의 건강이나 영혼의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삼 2)는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다.

그분께서는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시 103:3, 4).” -치료봉사, 112, 113.

이 이야기와 구절에서 우리는 영적 치유가 종종 육체적 치유를 촉진하는 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명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믿음과 회개는 독특한 방식으로 신체를 강화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은 믿음으로 치유를 받았으며, 이는 우리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죄로 병들고 상한 마음을 열어 주님의 자비를 받을 때, 우리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요일 1:9)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 “내 영혼을 소생 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혹시 그대가 깨닫지 못한 죄나 여전히 짊어지고 있는 짐이 있는지 마음을 살펴본 적이 있는가? 어쩌면 교만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막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 보라. 온전해지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까? 어떤 숨겨진 갈등이 그대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치유하시는 자비를 베푸신다.



영혼과 육신을 모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죄를 자백하고, 치유를 방해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라. 그러면 평안과 온전한 회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출 15:26)고 약속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짊어지신 주님을 통해 먼저 영혼의 치유를 구하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봉사하기 위해 태어나고 양육됨

크리스티안 파올레스쿠 - 루마니아

왜 100년인가?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교회를 통하여 그분의 충만하심과 풍족하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려고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야 한다.” -사도행적,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유산으로 그분의 백성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셨다. 이 기념비적인 선언과 함께 교회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영혼의 개심을 위해 수고하도록 설립되었다. 교회는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다. 시간, 재능, 자원은 모두 이 목적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우리에게 맡겨졌다.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 세상의 비참한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진지하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지 않은가? 우리가 간과한 큰 책임이 있지 않은가? 우리가 예수님과 맺은 언약이 아직 우리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가?”

우리는 변명 뒤에 숨어 있지만, 문제는 공산주

의도, 로마 가톨릭도, 자유주의도, 근대주의도 아니다. 문제는 잠자고 있는 그리스도교이다!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영원을 위해 중요한가? 그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대의를 발전시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경건함이 썩지 않도록 보관하는 냉장고가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고 말했다. 오히려 교회는 새로운 개종자들을 낳는 인큐베이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가정-주요 선교 학교

“질서 정연하고 잘 훈련된 가정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설교보다도 그리스도교를 더욱 많이 증거 한다. 그런 가정은 부모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데 성공적이었다는 것과 또한 자녀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준다. 그들의 감화는 자라날 것이니 이는 그들이 남에게 나눠 주면, 받은 이들이 또한 남에게 나눠 주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받은 교훈을 남에게 전하여 줄 조력자를 그들의 자녀 중에서 찾아낸다. 이웃들은 그들의 도움을 받는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 그들은 이생과 영원한 세상을 위하여 부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32.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경건한 감화를 받은 청년들의 큰 무리가 우리 신자들의 가정에서 배

출되어 저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복종시키고 저들의 생애로써 가장 고상한 봉사를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하신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31.

부모의 책임

사도 요한은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 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요삼 1:4) 라고 선언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을 주셨다. 왜 우리를 위해 어린아이들을 주셨는가? 그분을 위해 양육하도록 하셨다. 우리의 책임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우리가 우리의 식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가정을 추구하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서 선교적 열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을 취급하고 교훈하는 일은 남녀가 종사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선교 사업이다.” - 새자녀 지도법, 476.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데려오는 것은 훌륭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축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 즉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모든 어린이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도록 부름 받았다. 자녀를 위한 봉사의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다: “어린이들이 죄의 종이나 혹은 의의 종이 되게 훈련할 수 있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08.

섬기는 법을 배우기

“그대들의 좀 한가한 시간을 그대들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 그들과 함께 일하고 운동하면서 사귀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라. 그들의 우정을 개발시키라.” - 재림신도의 가정, 192.

부모는 조언을 해 주고 싶어서 매 순간 라디오를 틀어놓고 조언을 쏟아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녀에게 조언만 하기보다는 마음을 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아이에게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다.

“모든 어머니들은 각각 그들의 자녀들에게 요람기와 유년기에 것처럼 요긴한 이 작은 사랑의 표시를 할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 방법으로 어머니는 자녀들의 마음과 행복을 자기 자신에게 연결 시킬 것이다.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바를 자녀들에게 하여야 한다.” - 재림신도의 가정, 197.

우리는 자녀에게 어떻게 봉사하는 법을 가르칠 수 있는가?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사랑하는 부모님, 아름답게 산다는 것은 자녀와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고, 노인들에게 도움이 손길을 내밀고, 쓰러진 사람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존재를 선물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시간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5:15).

효율성과 열매 맺음의 비결은 단 하나뿐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다. 한 알의 밀이 열매를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2:20, 강조 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어떤 결과가 있는가? 우리는 그분의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삶은 어떠했는가? 그분의 전 생애는 온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섬김의 생애였다.

모범의 힘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빌 4:9[상단])

“하늘에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정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유능한 교인이 될 것이요 교회나 사회의 사무들을 그들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는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이여, 그대들의 신앙이 단순히 고백에 그치지 말게 하고 실제적인 것이 되게 하라. ...

가정에서 온유와 친절과 예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한 그대들의 믿음은 헛될 것이다. 가정의 신앙이 좀 더 참되다면 교회 안에는 더 많은 능력이 있게 될 것이다.” -재림신도의 가정, 317~319.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생애의 진정한 원칙의 우월성을 나타내 보이는 실물교훈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범은 세상에 선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다. ... 청년들이 이러한 가정으로부터 나아가 갈 때에 그들은 배운 교훈을 사회에 나누어 주게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31.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모범이 되기를 바라며, 이는 좋은 일이다. 이는 고귀한 소망이지만, 오늘날 그들의 모습은 우리가 어제 살아온 결과이다. 우리가 어제 뿌린 것을 오늘 거두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는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양육해야 한다.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요점은 “내일”이 아니라 “지금 아니면 절대”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는 나태한 “게으름뱅이가” 없음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유용한 인물이 되어 스스로를 돕고 남을 돕도록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재림신도의 가정, 283.

“부모들은 나태는 죄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모든 부담을 자녀들에게서 거두어 그들이 게으르고 목표 없는 생활을 하게 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또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는 것보다 그들을 더 분명하게 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다.” -재림신도의 가정, 284.

“믿음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에게 할당된 어떤 일, 곧 주님의 포도원에서 해야 할 어떤

부분이 있다.” -교회증언, 4권, 454.

우리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은 활기차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썩어 없어져가는가? 자기 생각만 하면 거만하고 오만해진다. 이런 태도에 길들여진 아이들은 이렇게 자라게 된다. 그 결과, 왜소하고 지루하며 하나님을 위해 활동하지 않는 세대가 될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교회는 재능을 땅에 묻어 두는 부모와 자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경꾼이 아니라 활동적인 일꾼을 필요로 한다.

“하늘에서는 항상 사업이 행하여지고 있다. 하늘에는 게으름뱅이가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다.” -재림신도의 가정, 287.

불을 지피다

“등불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꺼지지 않고 켜져 있으면 다른 많은 등잔에 점화할 방편이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32.

불은 본질적으로 불을 낳는다. 다른 가연성 물질로 둘러싸여 있으면 대장간 모루에서 나온 불티만으로도 불이 붙는다. 그리고 단 하나의 양초로도 수만 개의 양초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침례자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필요이다. 불로 침례 받은 교회이다. 마귀와 그의 왕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사랑의 불로 점화된 교회이다.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강력한 발전기와 같아 하나님을 위해 큰일을 감히 감행하도록 여러분을 이끌 것이다. 사랑하는 청소년과 부모 여러분, 지금은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할 때이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샘물이 된다.” -시대의 소망, 195.

“하나님께서서는 현대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비천한 위치에 있는 자들을 감동시키실 것이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

하여 이곳에서 저곳으로 빨리 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뼈 속에서 불처럼 되어 어둠 속에 앉아 있는 자들을 깨우쳐 줄 불타는 열망으로 그들을 채운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어린아이들도 성령에 의해 감동되어 하늘의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성령은 그분의 감동에 굴복하는 자들에게 부여될 것이다. 사람을 속박하는 규칙들과 신중한 움직임을 버리고 그들은 주님의 군대에 가담할 것이다.” -교회증언 7권, 26, 27.

세상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어떻게 계발할 수 있는가?

“인생이란 진지한 일과, 책임을 지고 고생스런 일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들은 실제적인 비상 사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남녀가 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조직적 훈련과 규율적 노동은 삶의 변화에 대한 방법이 될 뿐만 아니라 원만한 발달을 위해서도 유용한 것임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교육, 215.

다음이 필요하다.

1. 경건한 청년. 청년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 그분을 섬기는 데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는 법, 극기와 자기 희생, 그리고 그분께서 부르시는 모든 일에 대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집에서든 밖에서든, 상류 사회든 하류 사회든 어디에서든 그리스도를 위해 효과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청년들이 평범한 삶을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

2. 지성이 발달한 청년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활동과 직업에서 탁월함을 추구할 때,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세주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서 그저 평범한 것에 만족하겠는가? 마음의 열심이 지식의 부족을 메워줄 것이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의존을 왜곡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이다. 이 계명은 그분을 섬기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균형 잡히고 교양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3. 자기희생적인 청년. “순간을 즐기라”는 것은 붙잡아야 할 것이 아니라 희생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그리스도의 헌신 된 종이 필요하다.

“청년마다, 어린이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향상을 위하여 각각 해야 할 일이 있다.” -재림신도의 가정, 280.

최고의 특권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물질적 또는 직업적 발전의 노예일 수도 있고, 시계, 휴대폰, 또는 다른 기기의 노예일 수도 있고, 복지의 노예일 수도 있고, 잘못된 꿈의 노예일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노예는 결국에는 삶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제에 집착하는 것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베푸는 데 있으며, 관대함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베푸는 것은 실제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대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어주지 않도록 강요하고 싶은가? 만약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께서는 그대 안에 거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오히려 그대는 그대 자신의 이기심의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의 직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작은 봉사는 없고 너무 큰 봉사도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지만, 개인이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드는 작은 일들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대가 베푸는 만큼 그대가 받는 것이다.

“예수님과 이렇게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역에 참여하고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그리고 자신이 복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 11:25).” -건강에 관한 권면, 508.

“우리의 믿음은 선한 행실을 낳아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의무나 이루어진 모든 희생은 참으로 큰 보상을 가져온다. 의무 이행, 바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을 말씀하시고 또한 주신다. 그런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바치도록 요망하신다. 마음과 정신, 온 몸을 그분께 드려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 -교회증언 4권 145.

상급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대하 15:7).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마치 불치병에 걸린 것처럼 매일을 살아가라. 오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을 베풀어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절실히 필요로 한다. 나는 개혁 운동이 시작된 지 적어도 100년이 지난 후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진리의 힘으로 진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운동이 억눌리지 않고 화산처럼 분출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이기를 간절히 기도 한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이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는가? 이 사랑의 지진은 세상 끝까지 닿을 것이며, 영원을 꿰뚫고 그곳에서 계속될 것이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다. 현명하게 선택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불타오르라. 빛이 되라! 

12월 14일 일요일

제자를 삼음

올가 오르티즈 - 콜롬비아

참된 교육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사회의 핵심으로, 인격, 습관, 가치관을 형성하고 계발하는 장소로 제정하셨다.

“에텐에서의 교육은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 교육, 33.

이 신성한 계획은 타락 이후 인류에게 적용되었다. 참된 교육은 인류를 구원하고 회복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계발하는 사업이다. 참된 교육은 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땅과 영원을 위한 봉사의 삶을 위해 개인을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된 교육의 토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다. 아버지의 대표자이시며 하나님과 인류의 연결 고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위대한 교사이시며, 남자와 여자가 그분의 대표자가 되도록 마련하셨다. 가정은 학교였고, 부모는 교사였다. 이 원칙은 주 예수님의 지상 생활에서도 충실하게 지켜졌다.

그리스도의 교육

“예수님께서서는 시골집에 사시면서 가사를 돌보는 일에 그분의 역할을 신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하셨다. 그분께서는 전에는 하늘의 사령관이셨으며 천사들은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기를

즐거하였었다.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는 자원하는 종이 되고 사랑스럽고 순종하는 아들이 되셨다. 그분께서는 기술을 배우시고 몸소 요셉과 같이 목공소에서 일하셨다. 그분께서는 보통 노동자가 입는 검소한 옷을 입으시고 그분의 비천한 작업을 위해 내왕하시면서 그 작은 마을의 거리를 오르내리셨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짐을 덜어주거나 그분의 수고를 덜기 위해 그분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 - 시대의 소망, 72.

그분의 가정은 학교였으며, 마리아와 요셉은 신성한 원칙에 따라 그분께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자연과 단순함으로 둘러싸인 그분께서 성장한 문화적, 가정환경은 그분의 성품을 더욱 형성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필요와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그들의 학교는 회당, 또는 예배 장소와 연결되어 있었고, 교사들은 랍비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매우 학식이 풍부하다고 여겨졌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러한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사실이 아닌 많은 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사람들의 말을 연구했는데, 이러한 말들은 종종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르치신 것과 상반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친히 마리아에게 그분의 아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법을 배우셨다.” -예수 이야기, 30.

잘못된 개념

예수님께서 가정에서 받으신 훈련과는 달리, 당시 랍비 학교는 교육의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공허한 형식주의에 물들어 있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증진시키지도, 진정한 신적 원리에 기초한 인격의 발달을 촉진하지도 못하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다소 비슷하지 않은가?

“교육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그 범위가 너무 좁고 그 정도가 낮다. 우리는 더욱 넓은 식견과 보다 높은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된 교육은 어떤 연구 과정을 이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생활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참된 교육은 전인 교육(全人敎育)이어야 하며 평생 교육(平生敎育)이어야 한다. 즉, 지(知), 덕(德), 체(體)의 능력이 일생 동안에 걸쳐서 균형지고 원만하게 발달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교육이란, 이 세상에서 봉사함으로 얻어지는 기쁨과, 내세에 있어서의 더욱 넓은 범위의 봉사로 말미암아 얻어질 보다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교육, 13.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학교에서는 인간의 삶과 천국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한 품성과 가치가 소홀히 여겨진다. 과거의 오류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신성한 교육의 진정한 목적을 재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참된 교육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며 그 목적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참된 교육은 학문적 지식의 습득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영적, 도덕적, 사회적 형성을

포괄한다. 따라서 교육은 신성하고 엄숙한 일이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대해 어떻게 권면하시는지 볼 수 있다.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시며 이렇게 선언하신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와 의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창 18:19).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로 인해 가족에게 주님의 방법으로 교육했다. 우리 가정에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구세주께 사랑으로 헌신하는 습관을 기르고, 기도를 통해 자녀에게 모든 꿈과 슬픔을 들어 주시는 친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자비로운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사람을 존중과 사랑, 인내로 대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롭고 친절하게 창조하신 인류에게 자비롭고 친절하신 것처럼 자녀들은 자비롭고 친절해지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참된 교육을 이해하면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품성 형성이며, 이것이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품성 형성은 삶에서 근본적이고 초월적인 과정이다. 품성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소유물이며, 이는 가정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꼴 지워진 품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세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물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은 모든 신령한 학식을 하늘 집으로 가져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진보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세에서 우리의 품성을 계발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실물 교훈, 332.

부모의 신성한 임무는 자녀가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가르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같은 품성을 계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신명기 6:6~7).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육 지침을 소홀히 하고 엄숙한 의무를 저버릴 때, 자녀들은 영혼의 원수에게 교육을 받게 된다. 제사장 엘리의 사례는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사단이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보살핌과 인도가 필요하다.

“이 시대 젊은이들의 두려운 상태는 우리가 마지막 날들에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징조의 하나가 되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파멸하는 것은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서 비롯된 것임이 밝혀질 것이다. 책망에 대한 불평의 정신이 뿌리를 내려왔으며, 불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다.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의 품성 발달에 만족하지 못하면 서도, 그들을 현재의 모습으로 만든 잘못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회증언, 4권, 199.

부모는 그리스도인 교육이 지성뿐만 아니라 품성 계발, 도덕성 형성, 그리고 영생을 위한 준비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규칙으로 삼지 않으면 자녀들은 책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귀한 인간의 보물을 교육하고 인격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결국 참된 교육의 원칙과 품성 개발의 중요성을 영원한 의미를 지닌 과정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들의 친구 관계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이 친구로 선택하는 친구들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반영하도록 도울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왕자를 반영하도록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녀들이 시청하는 방송 영상물은 그들을 거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가치관을 낮추고 영적인 습관을 타락시킬 것인가? 자녀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모범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가족의 예

그리스도인 교육은 어린 시절부터 첫 교사인 부모의 모범을 통해 시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가 부모의 모범을 본받아 배울 수 있도록 가정에 작은 천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는 이유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은 성령의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묘사하는데, 이러한 자질들은 견고한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형성한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준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언 22:6).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마음과 품성을 새롭게 하라고 권고한다(로마서 12:2).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품성 형성은 성령의 개입과 개인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이다. 그리스도인 교육과 삶의 주된 목적은 품성 계발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인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 능력을 계발시키는 사람들이 책임을 맡고, 사업을 지도하며, 다른 이들에게 감화를 끼친다. 참된 교육은 이 능력을 계발시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청년들로 하여금 단지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영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생각하는 자가 되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뜻이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 사람이 말하고 기록해 놓은 것만 연구하게 하지 말고 진리의 원천, 천연계와 계시 속에 펼쳐져 있는 광범위한 연구 분야로 그들의 방향을 돌리게 하자. 이들로 하여금 사람의 본분과 운명에 대한 중요한 사실들을 깊이 생각하게 하자. 그리하면, 그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강하게 될 것이다. 교육 기관은, 교육을 받았으나 여전히 약한 사람들 대신에, 생각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의지력이 있는 사람들, 환경에 지배받기보다는 이를 지배하는 사람들, 넓은 마음과 바른 식별력과 신념에 대한 용

기를 가진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적 훈련과 육체적 훈련 이상의 것을 마련해 준다. 품성을 단련시켜 진실과 정직이 이기적인 욕망이나 세속적인 야심에 의해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또 정신을 강하게 하여 악에 대항하도록 만든다. 모든 동기와 욕구가 파괴를 일삼는 정복 욕으로 변하는 대신에 의와 위대한 원칙들과 일치하게 된다.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을 간직하게 될 때 마음은 새로워지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재창조함을 받게 된다.” -교육, 17, 18.

부모는 자녀를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러한 영향력이 어떻게 품성을 왜곡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는지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녀를 위해 즐겁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행동이 되풀이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형성한다. 끈기 있게 인생의 작은 의무들을 행하라. 그대들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한 그대들의 품성 건설은 만족스럽게 되지 못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의무를 다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눅 16:10)라고 말씀하셨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생애에는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48.

온전한 품성 형성은 다음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1. 하나님께 의지함: 매일 기도와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구하라(빌 4:13).
2. 절제와 자제력: 생각, 말, 행동을 절제하라(잠 16:32).
3. 타인을 섬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도우며 고상한 품성을 길러라(마 25:40).
4. 유아기부터 신성한 원칙에 기초한 교육(잠 22:6; 딤후 3:15).
5. 변화에 대한 끈기: 품성 형성은 영혼이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변화할 때까지 지속적인 과정이다(고후 3:18; 초기문집, 71).

실천을 통한 학습

세속적인 교육은 주님께서 신성한 교육 계획에 정하신 것을 확증해 준다. 아이들은 지식을 일상생활에 실제로 적용하여 환경과 연결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배운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은 책임감, 규율, 끈기, 인내심과 같은 자질을 기르는 데 필수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유용하고 실용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 또한, 교육을 의미 있고 풍요로운 경험으로 전환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근거해야 한다.

성경 교육

태초부터 하나님은 교육을 필수적인 과정으로 정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신성한 지식이 모든 가르침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라고 말씀하며, 참된 교육은 견고한 영적 토대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이 토대는 다음과 같은 근본 원칙을 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교육하는 일과 구속하는 일은 동일한 것이다”. -교육, 30.

또한 가르침은 영적 변화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1. 그리스도 중심: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골 2:3).
2. 통합적: 신체적, 정신적, 영적 성장을 포괄해야 한다(눅 2:52).
3. 실천적이고 적용 가능한: 이론적인 측면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타인을 위한 봉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마 25:40).
4. 품성 형성: 교육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성품을 형성해야 한다.

“이타적인 정신은 모든 참된 발달의 기초이다.

이타적인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재능이 최대한으로 계발된다. 이러한 일이 계속될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마음에 하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이다.” -교육, 16.

5. 소망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교육은 인간을 현세와 영원을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이 사명을 완수한다면, 모든 유혹이 우리의 발전을 위해 작용할 것이다. 왜냐하면, 유혹에 저항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삶에서 진보하게 되기 때문이다. 갈등의 열기 속에서 진지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우리 곁에 있어 하늘로부터 사명을 받아 우리의 씨름을 돕는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힘과 굳건함, 그리고 활력을 얻게 되고,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능력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 교육, 122.

그리스도인 교육은 가정이나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발전의 근본적인 기둥으로서 교회를 포함한다. 교회를 통해 젊은이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와 지원, 그리고 신앙의 모범을 배운다.



마지막 때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대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사 58:12). 이 엄숙한 부르심에는 교육이 포함된다.

“사단은 자신의 계획과 원칙들을 교육 제도에 투입시키기 위하여 가장 교묘한 방법을 사용해 왔다. 그리하여 그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단의 술책을 방해하는 것이 참된 교육자의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고, 그들의 재능을 세상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데 사용하도록 가르칠 엄숙하고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창조주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본받아야 할 분이 된다는 사상을 감명 깊이 이해해야 한다. 구원의 지식을 알려 주고 생애와 품성을 하나님의 모습과 일치시켜 줄 교육에 가장 열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황금의 실처럼 생애에 짜여져 있는 영혼의 순결이다. 이와 같이, 사람이 도달해야 할 높이는 아직껏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다.

이 과업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넓은 기초가 놓여져야 한다. 새로운 목적이 도입되어 위치가 구축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나 비뚤어진 것, 무엇이나 바른 노선에서 벗어나 구부러진 것은 명백히 지적되고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속되어서는 안 될 불의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건전한 원칙과 교리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학생들의 길을 비추어 줄 빛이 되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6권, 127.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딤후 2:1).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지지하고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연락망)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오테드

교육 재단을 통해 전인격적인 교육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자녀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육에 대해 세우신 본래의 계획이 회복되는 것이다. 부모는 하나님과의 중요한 연결 고리를 마련해 줄 책임이 있다. 즉, 자녀가 배우는 내용을 현실 세계와 연결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만의 의무가 아니다. 교회 또한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루는 데 근본적인 지원군이 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신

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특정 관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형성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에 반영되어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려는 우리의 사명은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교육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기초가 되어,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한다!(잠 1:7; 시 32:8) 

2025년 기도력

새벽에 하나님과 함께



엘렌 G. 화잇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

만일 그대가 친구나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대는 그대의 잘못을 인정해야 하고, 그대를 거리낌없이 용서해 주는 것은 그의 의무이다. 그 후에 그대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대가 상처를 입힌 그 형제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 그의 창조주요 구속주에게 죄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 경우는 전혀 사제 앞에 제시될 것이 아니고 유일한 참 증보자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히 4:15)하시고 모든 죄의 오점을 씻으실 수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

참된 고백은 언제나 구체적이며 개개의 죄들을 인정한다. 그 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만 제시되어야 할 그런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개인들 앞에 고백되어야 할 잘못들일 수도 있고, 회중에게 알려져야 할 일반적인 형태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고백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대가 범한 바로 그 죄들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진정한 회개와 개혁이 없으면 고백은 하나님께 가납될 수 없다. 생애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거슬리는 모든 것은 버려져야 한다. 이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639, 640.

그대의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마 5:23, 24)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호간에 하도록 명령하신 고백이 있다. 만일 그대가 말이나 행동으로 형제에게 잘못을 범했다면, 그대의 예배가 하늘에 가납되기 전에 그대는 먼저 그와 화해해야 한다. 그대가 손해를 입힌 자들에게 고백하고, 변상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에게 원망이나 분노, 악의를 품고 있다면 직접 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실수한 자들을 취급하시는 그리스도의 방법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이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 그분은 시험을 받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오직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의 마음의 어두움과 하나님과의 분리 때문에 그를 도와주기가 불가능하면, 우리는 다른 두세 사람과 함께 다시 시도해야 한다. 그렇게 해도 악이 바로 잡히지 않을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에 알려야 한다. 전체 교회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하지 않고도 잘못을 바로잡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일이다. 교회가 모든 불평이나 고백을 쏟아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그러나 죄를 어떻게,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지는 신중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빛을 구해야 한다. …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그분께서 인간을 통해 일하시든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든 능력과 영속성이 있다. … 하나님의 영의 감화를 받는 마음은 그분의 뜻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것이다. -교회증언 5권, 646, 647.

자복은 자비를 얻음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고치거나 우리의 허물을 속하기 위하여 길고 지루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런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죄를 고백하고 버리는 자는 자비를 얻을 것이다. 이것은 타락한 사람이 용기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구하게 하고자 주어진 귀중한 약속이다. …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나 그의 백성을 변명하려 하지 않고, 겸손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가운데 그들의 범죄의 심각성과 허물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분의 호소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한 나라에 대하여 취하신 그분의 처사를 공의롭다고 옹호했다.

이처럼 진실하고 마음에서 우러난 회개와 고백은 오늘날에도 크게 필요하다. 자신의 허물을 인정함으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낮추지 못한 자들은 가납받을 첫째 조건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만일 우리가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를 경험하지 않고 진정한 영혼의 겸비와 심령의 통회로써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악을 미워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결코 죄의 용서를 진정으로 구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혀 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결코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과거의 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지 않고 진리의 말씀의 조건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5권, 635, 636.

나는 미천하오니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
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욥
40:4)

모든 범법 행위,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
거나 거부하는 모든 행위는 그 영향이 그대들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 그것이 마음
을 완악하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고, 이해
력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간
구에 굴복하려는 마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
라 굴복할 능력도 약화시킨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할 때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또는 저
희가 자비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면서도 거듭
거듭 감명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그들은 은혜의 성령
을 거역하고 사단의 편에 자신의 감화력을 끼
친 이후에라도 최후적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
던 길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일생동
안의 경험과 교육이 이미 그 품성을 너무나
철저하게 형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비록 품성 가운데 한 가지의 못된 성벽이나
한 가지 악한 욕망이라도 고집스럽게 품고 버
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복음의 모든 능력을 무
력화시킬 버릴 것이다. 죄악적 방종은 하나님
을 싫어하는 정신을 강하게 한다. 대담하게 불
신의 정신을 나타내는 자, 거룩한 진리에 대하
여 전연 무관심하는 자는 그 자신이 심은 바의
수확을 거둘 뿐이다. -정로의 계단, 33, 34.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품성을
올바로 알기는 어렵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하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흔히
실수를 범한다. 자아를 기만하고, 그 경고와
책망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자기애(自己愛)와 자신감(自
信感)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요구에 미치
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옳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332.

우리는 수치 중에 늪졌고

“우리는 수치 중에 늪졌고 우리는 수욕에 덮
이울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
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
치 아니하였음이니이다”(렘 3:24)

진정한 회개와 개선이 없는 자복은 하나님
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반드시 생애에 결정
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께 거리끼
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버려야 한다. 이
것은 죄에 대한 진정한 슬픔의 결과가 될 것
이다. 우리로서 하여야 할 일은 분명히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
로 깨끗케 하여” ...

죄가 도덕적 지각을 마비시키면, 잘못을 저
지른 사람은 자신의 품성의 결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능력에 굴복하
지 않는 한,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해 부분적으
로 눈먼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된다. 그의 자복
은 진실하지도 않고 진지하지도 않다. 그가
자기 죄를 인정할 때마다 자기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여 사과하기를 특정한 상황이 아니었
다면 자신이 책망받는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
았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정로의 계단, 39,
40.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자가 없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패배
와 죽음이 닥쳤다. ...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
하는 자들이 소중히 여기고 행하는 여러 가지
죄악은 교회에 하나님의 노여움을 초래한다.
하늘의 원장이 열리는 그 날에 심판자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에게 그의 범죄를 나타내지 않
으시고 꿰뚫어 보는 눈길, 곧 죄를 깨닫게 하
는 눈길을 던지실 것이다. 그러면 모든 행위,
곧 생애의 모든 거래가 범죄자의 기억에 생생
하게 인상될 것이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의
시대처럼 지파에서 족속으로 수색해 낼 필요
가 없을 것이며, 그 자신의 입술로 그의 수치
와 이기심과 탐심과 부정직과 위선과 기만을
고백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493.

10월 6일(월)

죄의 짐은 너무 무거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시 38:4)

사단이 그대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랄 수 없다고 말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고 사단에게 말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하나 우리가 현재 그리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간구는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우리의 전혀 무력한 상태에 대한 간구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자기 의뢰심을 버림으로 갈바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손에는 가지고 갈 아무 대가도 없습니다
다만 주의 십자가에 매달릴 뿐이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혼을 영적 사망에 붙잡아둘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죽은 모든 자들에게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엡 5:14)고 말씀하시고 계시다. 그 말씀은 곧 영생이다. ...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건짐을 받는다. -시대의 소망, 317~320.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상태 그대로 예수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그분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신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 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크게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한다. -산상보훈, 9.

10월 7일(화)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냄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냄이여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시 31:10)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람들의 환경을 아신다. 죄인의 죄가 크면 클수록 그에게는 구주가 더욱 필요하다. 거룩한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진 그분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가장 속절없이 원수의 울무에 사로잡혀있는 사람에게로 끌려간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피로써 인류의 해방문서에 조인하셨다. -치료봉사, 89, 90.

야곱이 에서를 속이는 죄를 범한 후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할 때에 그는 죄지은 것을 생각하고 죄책감에 눌렸다. 그는 자기의 생애를 행복되게 하던 모든 것을 떠나 외로운 방랑자(放浪者)가 되었는데 아무 다른 것보다도 그의 심령을 누른 한 가지 생각은 자기 죄가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하고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는 슬픈 중에 자려고 맨땅 위에 누우니 사면은 쓸쓸한 언덕 뿐이요 위에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이었다. 그가 잠이 든 사이 이상한 빛이 나타나 보였는데 본즉 그가 누운 땅에서부터 하늘문까지 닿은 듯한 매우 큰 사다리가 있고 그 사다리 위로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였다. 그 때에 위의 광명한 데서부터 위안과 희망의 기별을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리하여 야곱은 그의 심령의 요구와 갈망을 채워주시는 자-구주-를 알게 되었다. 그는 기쁨과 감사한 중에서 죄인이었던 자기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의 꿈에 나타난 신비한 사다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교통의 중재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다. ...

아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그 놀라운 희생을 묵상하여 보자! 온 하늘이 잃어버린 자를 도로 찾아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소비하고 있는 노력과 정력의 진가(眞價)를 생각하여 보자. -정로의 계단, 19, 20.

10월 8일(수)

하나님께서 나의 우매함을 아심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시 69:5)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범하는 많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품성 가운데 여러 강점들이 있고 약점이 단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죄와 심령 사이에 교제가 아직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다. 마음은 둘로 갈라져 봉사하면서, “얼마큼은 자신을 위하고, 또 얼마큼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가 좋아하고 탐닉하는 죄악을 반드시 찾아내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음에서 끊어버리시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그는 그 한 가지 죄를 반드시 이겨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조금도 시기하지 않지만,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못된 말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화를 내면 항상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이런 저런 잘못이 있지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보이는 이런저런 비열함은 떨시한다.”라고 말한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의 경중에 대한 목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죄는 큰 죄요 따라서 크게 손해를 끼치는 반면 어떤 죄는 거의 대수롭지 않고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사슬은 그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보다 결코 더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이런 사슬을 대체로 좋다고 할 수도 있으나 사슬의 한 고리가 약하면 그 사슬은 믿을 수 없다. 정복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연구할 과제이다. 입에서 터져나오는 참을성 없는 말들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대의 품성을 다른 사람들이 올바르게 평가하지 않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대의 감화력을 약하게 하여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확실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순교자라는 생각을 극복하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9)고 하시는 그리스도의 허락을 주장하여야 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91, 92.

10월 9일(목)

내 죄악을 고할 것임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시 38:18)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이여, 그대들이 야생귀리를 뿌리는 데 보낸 적은 시간이, 그대들의 온 생애를 쓰라리게 하는 작물을 거두게 될 것이다. 한 시간 동안 생각하지 않고 유혹에 한 번 굴복한 것이 삶의 흐름 전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젊음은 단 한 번 뿐이다. 그 젊음을 소중히 여기라. 그대들이 일단 지나쳐버리면 그대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결코 돌아올 수 없다.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거절하고 자신을 유혹의 길로 내모는 사람은 반드시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젊은이들을 시험하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부주의와 불경건이 경험 많은 교사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잘못된 모본 때문이라고 변명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대들은 지금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변명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대들이 길을 알고서도 그 길을 걷고자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들은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

젊은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허영과 어리석음에 그들의 힘을 낭비하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단련하고 지식을 쌓으며 인생의 싸움에 참여할 갑옷을 입고 성공을 거두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들이 애정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으면 그들이 아무리 높이 오르고자 시도할지라도 그들은 생애의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약화시키려는 자들의 아침을 물리친다면,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힘과 확신을 얻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4권, 622~624.

그대들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은 그대들의 의무이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즉시 의지를 취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 그대들 안에서 일하실 것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2.

10월 10일(금)

나는 내 죄과를 압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 51:3)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무한하신 분의 능력이 그들에게 드러났을 때 겁에 질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상황에 따른 복종이 아니라 깊고 진심 어린 회개와 죄에 대한 포기를 통한 철저한 회심이 필요하다. 절반만 회심한 사람은 가지가 진리의 편에 서 있지만 뿌리는 땅에 단단히 박혀 세상의 척박한 땅을 향해 뻗어 있는 나무와 같다. 예수님께서 가지에서 열매를 찾으려 애쓰시지만, 잎사귀만 발견하실 뿐이다. -교회증언 4권, 155.

젊은이들과 심지어 장년층까지도 유혹과 죄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연구하거나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애와 품성에서 드러나는 확고하고 단호한 의지력의 부족은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가르침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교회증언 8권, 319.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관하여 진정으로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우리가 철저하게 무력한 우리의 상태를 깨닫고 자기 신뢰를 완전히 버릴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은 우리 자신의 외부에서 오는 힘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끊임 없이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어 놓고, 쉬지 말고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심령을 겸비하게 할 필요가 있다. 위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믿음의 손으로 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굳게 붙들 때에만 안전하다. -교회증언 8권, 316.

10월 11일(안)

성령께서 판결하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요 16:8)

나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받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권임을 보았다. 그대들은 아름다운 하늘의 평안이 마음에 충만해지고, 하나님과 하늘을 명상하기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그분의 말씀에 속해 있는 영광스러운 약속으로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출발했다는 것을 먼저 알라. 영생으로 가는 길에서 첫 발걸음을 디뎠다는 사실을 알라. 속임을 당하지 말라. 나는 그대들 중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참으로 두렵다. 그대들은 어느 정도의 흥분과 어느 정도의 감정을 느꼈지만, 죄의 흉악성을 결코 보지 않았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미흡한 상태를 결코 느끼지 못하고, 애통하며 그대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그대들은 세상에 대하여 결코 죽지 않았다. 그대들은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속적 사물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의 진리가 화제로 등장하면, 그대들은 할 말이 전혀 없다. 왜 그처럼 침묵에 사로잡히는가? 세상의 사물에 대하여서는 그처럼 말을 잘하였는데, 그대들에게 가장 관계가 깊은 문제, 그대들의 온 심령을 다하여 열중해야 할 그 문제에 관하여서는 왜 그처럼 침묵하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 안에 거하고 있지 않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32, 133.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바꾸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의 변화이다. 자아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57.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것을 취하여 그에게 보여주신다. 우리의 눈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킨다면, 영혼이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까지 성령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시대의 소망, 302.

10월 12일(일)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시 139:23, 24)

죄의 기만성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현혹하고 판단력을 잃게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다. 사단은 여러 가지 유혹을 한꺼번에 들고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이러한 유혹을 선한 것처럼 위장한다. 그는 오락이나 어리석은 일에 얼마간의 좋은 점을 가미한다. 따라서 속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일을 행함으로 위대한 선을 끌어낼 수 있다는 구실로 삼는다. 그것은 기만 전술의 일환일 뿐이다. 그것은 가면을 쓴 사단의 흉악한 계교이다. 미혹된 영혼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는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방어적인 입장에 서서 교활한 적의 첫 번째 유혹을 저항하여 그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의 경향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즐겁다.

오! 사단은 그의 미끼에 그토록 쉽게 걸리는 것과 또한 사람들이 그가 준비해 놓은 바로 그 길로 행하는 것을 보려고 얼마나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지! 마귀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렇게 하여 더욱 그들을 그의 일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꾀변과 기만적인 합정을 그들의 경험과 직업과 결합시켜, 그의 사업을 놀랍게 발전시킨다.

우리는 면밀히 자기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과연 나는 마음이 건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했는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았는가, 혹은 외양으로만 새 옷을 입었으나 아직도 육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빛에 비추어 은밀한 죄, 불의, 혹은 포기하지 않은 우상이 있는지 살펴보자. ...

그대들은 자신의 영혼을 진실되게 취급하라. 주의 깊이 살피라.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83, 84.

10월 13일 (월)

하나님께서만 용서하실 수 있으심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요며”(단 9:9)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들은 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그대들의 희망을 걸지 말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에 욕이 돌아갈 말은 전혀 하지 말라. 그대들의 은밀한 죄는 그대들의 하나님께만 고백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처리하는 법을 완전히 아시는 분에게 그대들의 갈등을 알려드려라. 만일 그대들이 이웃에게 잘못을 범했으면 그에게 그대들의 죄를 인정하고 변상을 함으로써 그 사실에 대한 결과를 보여 주라. 그리고 축복을 구하라. 그대들의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그대들의 모든 약점들을 고쳐 달라고 하라. 그대들의 사정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내놓으라. 그 일을 철저하게 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와 그대들 자신의 영혼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신실하라. 만일 그대들이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면 그분께서는 그대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는 자유에 대한 감미로운 간증을 할 수 있을 것이며 그대들을 흑암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대들을 오해하거나 잘못 판단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대들의 동료 인간들은 그대들을 죄에서 놓아 주거나 그대들을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줄 수 없다. 예수님은 그대들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께서는 그대들을 사랑하시고 그대들에게 그분 자신을 주셨다. 그분의 위대한 사랑의 마음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히 4:15) 하셨다. 그분께서 용서하실 수 없을 만큼 큰 죄가 무엇이겠는가? 어떤 영혼이 그분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깊은 흑암과 죄에 눌러 있겠는가? 그분은 은혜로우시므로 우리에게서 공로를 바라시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타락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시는 그분의 무한하신 자비로 사랑하신다. 그분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교회증언 5권, 649.

그대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대의 잘못을 피차에 고백하라. -교회증언 5권, 639.

10월 14일(화)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죄들은 용서받을 수 있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훼방하는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막 3:28, 29)

무엇이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가? 그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특별한 역사를 증거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는 그 역사가 성경과 일치한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령께서 그의 영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증거한다. 그러나 그 후에 그는 유혹을 받아 타락한다. 교만, 자부심, 그밖의 다른 악한 특성이 그를 지배한다. 그리하여 그 역사의 거룩한 특성에 대한 모든 증거를 거절하고, 그는 그가 이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인정했던 것이 사단의 능력이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사람들이 고의로 성령을 거부하고 그것이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선언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즐겨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부인함으로써 그들은 그들의 마음 속에 비취고 있던 빛을 꺼 버린다. 그 결과로 그들은 어둠에 묻히게 된다. -교회증언 5권, 634.

사람이 회개하고 믿는다면 죄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으나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자는 회개하고 믿을 수 없는 자리에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령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 하시는데 사람이 고의로 성령을 거절하고 이를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들과 교통하실 수 있는 통로를 끊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을 끝까지 거절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대의 소망, 322.

10월 15일(수)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요일 1:9)

진정한 회개로 부드러워진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갈바리의 희생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마치 아들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진정으로 회개한 자는 그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 갈 것이다. -교회증언 5권, 641.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하는 것이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고백해야 한다. 공공연하게 범해진 죄는 모두 공개적으로 고백되어야 한다. 동료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기분을 상하게 한 사람과 함께 바로 잡아야 한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악한 말을 했거나, 가정이나 이웃 또는 교회에 불화를 조장하거나 이간과 불화를 일으켰으며, 어떤 그릇된 일로 다른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였으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과 피해를 입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한다. -치료봉사, 229.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우리가 과거의 범죄를 회개하고 장래의 순종을 결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어야 한다.

때때로 어둠과 낙담이 영혼을 엄습하여 우리를 압도하려고 위협하지만, 우리는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음에 느껴지든지 느껴지지 않든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는 모든 의무를 신실히 이행한 다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안한 가운데서 안식해야 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1.

10월 16일(목)

자백은 구원에 이르게 함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원수의 의도가 성취되지 않도록 얼마나 자주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는지 깨닫는다면, 불평하며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굳건히 서 있을 것이고, 어떤 시련도 그들을 흔들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실 것이다. -선지자와 왕, 576.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조건은 단순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 용서를 받기 위하여 어떤 괴로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혼을 위탁하거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길고 고된 순례를 하거나 고통스러운 고행을 할 필요가 없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그분의 교회 곧 그분께서 보혈로 속전을 지불하신 이들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여러 세기나 여러 시대가 흐를지라도 그분의 속죄의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매우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매우 단단히 붙잡으셨기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모든 약속의 배후에 계신 분에게 의존되어 있다.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것이 비록 약한 듯이 보일지라도 그분의 사랑은 말형의 사랑과 같다. 우리가 그분과의 연합을 유지하는 한 아무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사도행적, 552, 553.

10월 17일(금)

내가 자복했고 주께서 사하셨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시 32:5)

이 기록에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는 생각에 눌린 자들에게 주는 믿음과 격려의 교훈들이 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배도의 결과를 충실히 드러내지만 또한 여호와께 돌아간 시기를 나타내는 깊은 겸비와 회개와 열렬한 헌신과 관대한 희생을 묘사하고 있다.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생애에 영원한 기쁨을 갖게 된다. 죄인이 성령의 감화를 받을 때에 그는 마음을 살피시는 크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깨닫게 된다. 그는 자신이 정죄 받은 죄인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죄사함을 받은 것을 느끼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 기뻐할 수 있다. 죄가 많지만 회개한 인간들을 그분의 사랑의 팔로 안으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죄에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옷을 입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선지자와 왕, 668.

다윗의 시편은 의식적인 죄책감과 자책의 심연에서부터 가장 고귀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가장 고상한 교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험을 다루고 있다. 그의 생애의 기록은, 죄는 수치와 괴로움만을 가져올 뿐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가장 깊은 구렁에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믿음으로 회개하는 영혼을 높이사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신다고 선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포된 모든 보충 가운데 이것이 충실과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에 대한 가장 강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이다. -부조와 선지자, 754.

10월 18일(안)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실 것임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사 43:25)**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지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

세상 법정의 판결에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들이 온 세상의 심판장되신 하나님 앞에서 심사되는 하늘 법정에 기울이는 흥미에 비하면 다만 희미한 것에 불과하다. …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기록한 책들에서 도말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큰 날에 그 죄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 악행은 백주에 행한 것이나 밤의 어둠속에서 행한 것이 나를 막론하고 우리를 취급하시는 하나님 앞에 공공연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모든 죄를 목격하고 절대로 잘못이 없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죄는 그 부모 앞이나 처자와 친구들 앞에는 숨길 수도 있다. 또한 그 범행자 외는 그 악을 추호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이들 앞에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난다. 가장 어두운 밤이나 가장 교묘한 속임수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생각까지도 숨겨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온갖 긍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아니한 행위와 생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경건한 모양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주님께서서는 사람의 품성을 평가하시는데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의 본성을 다 아신다. … 얼마나 엄숙한 일인가! -각 시대의 대쟁투, 483~486.

10월 19일(일)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눅 6:37)**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줄 때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며, 이 사랑에 마음이 감동되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끊어 버리게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해를 끼친 자들이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한 그들을 용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물론, 회개와 고백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도리이긴 하나,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이 그 실수를 고백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에 대하여 긍휼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그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심한 상처를 줄지라도, 불만을 품거나 상처를 받은 자신을 동정하지 말며,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받으려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잘못된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널리 용서하시리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마치 그 약속의 뜻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부언하신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 55:7~9).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에서 면하게 해주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한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는 사랑의 표현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 자신을 주셨다. -산상보훈, 113, 114.

10월 20일(월)

우리는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았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엡 1:7)

죄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불가사의해졌으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은 초자연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의 피를 통해서만 죄에서 정결함을 받는다. 그분의 은혜만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경향을 저항하고 굴복시킬 수 있게 한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 관한 영적 이론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천연계에 편만한 하나의 본질적인 요소라면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 안에 거하실 것이고, 또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계발시키기만 하면 된다. -교회증언 8권, 291.

그대들은 승리자의 상급을 받을 것이며, 그분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모으시는 날 그분께 찬양을 노래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설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옷은 어린양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며, 사랑이 의복처럼 그대를 감싸야 하고, 그대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발견되어야 한다.

요한은 말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교회증언 4권, 125.

10월 21일(화)

그분의 피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려졌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주님의 자녀들이여, 이 약속은 얼마나 고귀한가! 우리 죄를 위한 그분의 대속은 얼마나 완전한가! 구속주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죄인들을 위하여 거룩한 보혈로 탄원하고 계신다. 상처난 손과, 찢리신 옆구리, 손상된 발로 그토록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사신 타락한 인류를 위해 감동적으로 탄원하신다. 아, 비할 데 없는 겸손함이어! 어떤 시간이나 어떤 사건도 대속하신 희생의 효력을 감소시킬 수 없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늘로 오르며, 아론이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의 보좌에 피를 뿌리고 죄로부터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 것처럼, 희생당한 어린양의 공로도 오늘날 죄의 흠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가납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4권, 124.

그리스도의 찢어진 육체와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즙을 받을 때에 우리는 상사 가운데 다락방에서 거행된 성만찬에 참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죄를 지신 분의 고민으로 성별된 동산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한 그 투쟁을 목격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들 가운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의미 심장한 것인지를 더욱 충분히 깨닫게 된다. 구속의 경륜은 우리 앞에서 영광스럽게 빛나고 갈바리의 사상은 우리 마음속에 활력 있고 신성한 감격을 일깨운다.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돌리는 찬양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을 것이니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시대의 소망, 661.

10월 22일(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짐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롬 3:25)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양의 보혈을 신자들은 심령에 적용한다. 위대한 원형이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롬 8:34) ...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시 51:7).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5.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속죄 사업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자원하여 오셨다. 그분에게는 의무적인 멍에가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율법에 구애되지 않고 초월해 계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지성적인 전령으로서 천사들은 의무적인 멍에 아래 있었으며, 그들의 어떤 개인적인 희생도 타락한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만이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나 죄된 인류의 구속을 담당할 수 있으셨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버리고 그것을 다시 취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 그리스도의 보혈은 유효하다. 그러나 이것은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들에게 맡겨 주신 방법을 그분의 종들이 사용하기를 바라실 뿐 아니라, 그분의 사업에 그들 자신을 희생하기를 바라신다. -교회증언 4권, 120~122.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곁에 보시고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네가 낮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 그분께서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시대의 소망, 203.

우리는 하늘의 빛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은 두꺼운 벽과 같은 구름을 뚫고 나갈 살아있는 믿음을 행사해야 한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3.

10월 23일(목)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씻기셨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계 1:5[하단])

사단은 그대들에게 “너는 너무나 큰 죄인이므로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하리라”고 속삭일는지 모른다. 그대들이 진실로 죄 많고 무가치함을 인정하면서 그대들은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장한다. 나는 나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 이 순간에도 나는 나의 속절없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의탁한다”는 부르짖음으로 시험하는 자를 대적할 수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12.

사람은 율법을 범함으로 인하여 죄의 선고 아래 있게 되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을 인성으로 가리우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의인으로써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그분의 생명을 버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주시고 각 사람에게 피로 사신 용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신다. -실물교훈, 244.

천사들은 놀람과 경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위하여 하시는 사업을 바라본다. 저들은 주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도록 하신 그 사랑을 인해서 경탄한다. 그러나, 인간은 그분의 보혈로써 속죄하신 사업을 얼마나 경시하는가! -복음교역자, 497.

이 놀랍고도 무한한 선물이 주어졌을 때, 온 하늘 우주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크게 감동되었고, 그 선물의 가치에 비례되는 감사가 인간의 마음 속에 일깨우기 위해 움직였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두 마음을 놓고 머뭇거릴 것인가?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권능의 극히 일부를만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인가? 온 하늘의 사령관이셨던 분이 그분의 왕복과 왕관을 벗어 놓고, 타락한 인류의 무력함을 깨달으시고, 우리의 인성을 그분의 신성과 연합시킬 수 있도록 인간 본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교회증언 7권, 29.

그들은 그들의 옷을 씻었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계 7:14)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 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속받은 십 사만 사 천명은 하나님의 거문고를 손에 들고 어린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 ...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 사만 사천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 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계 15:2, 3, 14:1~5) 이다. 또한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8, 649.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는 가장 고상한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투쟁을 안다. 그들은 그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이 투쟁에 참여하기보다는 상황에 굴복한 자들은 모든 영혼에게 고통이 닥칠 그날,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땅에 있을지라도 아들과 딸도 구원할 수 없는 그날에는 어떻게 설 것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교회증언 5권, 215.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엡 2:13)

그대는 그리스도에 의해 선택되었다. 그대는 어린양의 귀한 피로 구속되었다. 하나님께 그 피의 효력을 간구하라. 그분께 말씀드리라: “저는 창조로 인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구원으로 인해 주님의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권위와 형제들의 조언을 존중하지만, 그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저를 가르쳐 주소서. 저는 주님과 언약을 맺어 신의 성품의 기준을 따르기로 했으며, 주님을 제 상담자이자 안내자로 삼아 제 삶의 모든 계획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를 가르쳐 주소서.” 주님의 영광을 그대의 첫째로 고려하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모든 욕망을 억제하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모든 야망을 버리라. 마음의 순결과 성결을 장려하라. 그리하여 복음의 진정한 원리를 대표하라. 그대의 삶의 모든 행위가 주님의 뜻을 행하려는 성스러운 노력으로 성결되게 하라. 그리하여 그대의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금지된 길로 이끌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348.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력은 생동감 있게, 능력 있게 백성들에게 제시되어야 했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 공로를 붙잡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향기로운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동안에 대제사장이 속죄소 위에 따뜻한 피를 뿌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의 효력을 간구할 때, 우리 기도는 우리 구주의 품성의 공로의 향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 우리는 자신의 무가치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한 모든 죄를 그분은 제거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교회의 생명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2.

10월 26일(일)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그분의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9:12)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계 20:12)을 것이다. 그 때에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개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 책에서 도말된다. 이와 같이 하여 성소는 죄의 기록에서 해방 혹은 정결케 되는 것이다.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업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었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의 정결로 예표되었다. ...

이리하여 성막과 후에 그 대신 세워진 성전의 봉사에서 백성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봉사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 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 곧 죄와 죄인들로부터 우주를 최종적으로 정화하는 사건으로 이끌려갔다. -부조와 선지자, 357, 358.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단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9.

10월 27일(월)

그분의 왕국의 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흠은 공평한 흠이니이다”(히 1:8)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사실을 앎으로써 끊임없이 강해져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이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 기초는 영원히 굳건히 서 있을 것이다. 사단의 어둠에 대해 생각하고 그의 능력을 두려워하는 대신, 우리는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로부터 빛을 받고 그 빛이 세상에 비추도록 해야 한다. 그분께서는 사단의 모든 능력을 초월하시고 그분의 든든한 팔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주장해야 한다. -교회증언 5권, 742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졌으며,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시고, 무력한 인간 대리인에게 당신의 의라는 값진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라고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큰 소리로 선포되고 그분의 성령이 크게 부어지심이 수반되어야 한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2.

우리의 온갖 능력을 계발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동포를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의무이다. 재능과 유용성이 날마다 자라나지 않는 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을 고백할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서약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최대한 완전하게 계발해야 한다. -실물교훈, 329.

그리스도의 의를 갈망하는 자들은 크신 구원에 대한 주제를 깊이 생각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41.

10월 28일(화)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은 화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롬 5:10)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모든 타락한 아들과 딸을 위해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셨다. 오, 그분이 겪으신 수모는 얼마나 컸던가! 그분은 수모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가시며 점점 더 낮은 곳으로 가셨지만, 결코 죄의 더러운 흔적 하나라도 그분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셨다. 그분은 모든 것을 참으셨으니, 이는 그대를 들어올리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연단하시고, 귀하게 만드시며, 그분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아무리 죄 많고 죄책감이 있더라도,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받았다. ... 아무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강제로 이끌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늘의 위엄이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생명을 바치심으로 그분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 그러나 그분이 그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겪으셨지만, 그분은 너무 순결하시고, 너무 의로우셔서 죄악을 보실 수 없다. 그러나 이조차도 그대를 그분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멸망할 영혼들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그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게 하라.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간구하게 하라. 그러면 그들은 영광중에 그룹들 사이에서 속죄소 위에 계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여권이다. 이 여권을 통해 그대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교육 기초, 251.

10월 29일(수)

그분의 의는 그분의 우월성을 나타냄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네게 주어 네 동류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히 1:9)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 각자에게 그분께서는 선천적, 영적 재능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러 가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하늘 집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고상한 관점에서 일하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고자 노력함으로 우리는 더욱 많은 품위를 소유하고 그분의 모습으로 자라날 것이다.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150.

그리스도인은 사업 생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기업 업무에서 취하실 태도를 세상에 나타내어야 한다.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그의 스승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부기장과 장부와 증서와 영수증과 환어음에 기록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는 것이다. -시대의 소망, 556.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입혀 주실 것이다. -실물교훈, 311.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구주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충만한 안전감을 가질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07.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히 2:17)

성별된 대제사장으로서는 그분은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신다. 신실한 목자로서 그분은 강하고도 확실한 피난처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로 그의 양무리를 모으신다. 그분에게는 사단과의 마지막 투쟁이 기다리고 있으며 그분은 이 투쟁을 맞으려고 나아가신다. -시대의 소망, 680.

그와 같이 크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아버지 앞에서 그분의 피로 탄원할 때에 회개하고 믿는 각 영혼의 이름을 그분의 마음에 지니신다. -부조와 선지자, 351.

그리스도를 표상한 아론처럼 우리의 구주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분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시고 들어가신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그분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셨던 모든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그는 늘 그분의 언약을 생각하신다. -실물교훈, 148.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은 “순(나무의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에 대하여 말한 스가랴의 아름다운 예언에 나타나 있다. 그는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아버지의) 위(位)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슥 6:12, 13)고 말한다. ...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는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

그분께서는 그분의 무죄하신 생애와 상하고 찢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찢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이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5, 416.

그분 안에서 의가 이루어졌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마 3:15)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의미로 침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죄인과 같이 되셔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걸으시고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행하신 것 뿐이다. 침례를 받으신 후의 그분의 고난과 오래 참으신 생애도 또한 우리에게 모본이 되었다.

물에서 나오신 예수님은 곧 강 언덕에 오르려 기도하셨다. 새롭고도 중대한 시대가 그분의 앞에 열려 있었다. 그분은 지금 좀 더 광범한 무대에 서서 그분의 생애의 투쟁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이었지만 그분의 강림은 칼을 뽑는 것과 같아야 했다. ...

이 세상에서 그분을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분의 공생애 동안도 그분은 홀로 행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일생 동안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분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의 제자들조차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에 거하셨었으나 그분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되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자로서 우리의 죄와 비애의 짐을 담당하셔야 했다. 무죄하신 자가 죄의 수치를 느껴야 했다. 평화를 사랑하는 자가 분쟁과 함께 살아야 했고 진리가 거짓과 함께, 깨끗함이 누추함과 함께 거해야 했다. 범죄로 생긴 모든 죄악, 모든 불화, 모든 누추한 정욕은 그분의 마음에 큰 고통을 가져다 주었다.

그분은 홀로 그 길을 걸어야 하였으며 홀로 그 짐을 지셔야 했다. 영광을 버리시고 인류의 연약한 몸을 받으신 그분께 세상의 구속이 달려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으나 그분의 목적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았다. 타락한 인류의 구원이 그분의 팔에 달렸으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사랑의 손을 붙잡기 위하여 그분의 손을 내미셨다. -시대의 소망, 111.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의 곁에 머물러 계실 수도 있으셨다. 그분은 또한 하늘의 영광과 천사들의 경배를 보유했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분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취 주시고 멸망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왕위(王位)를 아버지께 돌려드리고 우주의 보좌에서 내려오기로 선택하셨다. -시대의 소망, 23.

11월 1일(안)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사 43:2)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많은 종들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 시기와 종교적 편견으로 가득 찬 자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하게 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향한 인간의 분노가 일어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비난할 것이다. ...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이 저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며, 어떤 대가나, 심지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고려조차도 거짓 예배에 최소한의 양보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죄 많고 유한한 사람들의 명령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비록 투옥이나 추방이나 죽음의 결과가 이를 지라도 진리에 순종할 것이다. -선지자와 왕, 512, 513.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디었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 맛을 보았다. ...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9, 650.

11월 2일(일)

나의 속량물은 값아졌음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사 43:3)

우리는 소망가운데 즐거워 할 수 있다. 우리의 대언자는 하늘 성소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옷 입혀 주시고, 하늘의 교제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 ... 그대는 그대 자신을 유혹자의 세력에서 구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귀중한 피의 공로가 제시될 때 그는 떨고 도망친다. 그렇다면 그대는 예수님께 서 주시는 축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 그대의 불신으로 동정 많은 신 구주의 마음을 한 순간이라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분은 가장 강한 관심을 가지고 하늘 가는 길에서 전진하고 있는 그대를 살펴보신다. 그분은 그대의 열렬한 노력을 보신다. 그분은 그대의 타락과 회복, 그대의 희망과 공포, 그대의 투쟁과 승리를 주시하신다. -교회증언 5권, 316, 317.

구세주께서는 온 세계에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시며 그분의 품성을 밝히 나타내시기를 열망하신다. 세계는 그분께서 사신 소유물이며 그분은 사람들을 자유스럽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신다. 비록 사단이 이 목적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나 세계를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릴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시대의 소망, 827.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그분께로 이끌어 영원한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왕궁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대신하여 죄와 수치의 고통을 참으셨고, 인류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교회증언 5권, 614.

11월 3일(월)

그분께서는 그분의 것을 되찾으실 것임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사 43:6)

인간이 잃어버린 바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암흑으로 덮여 불행과 질병과 사망이 다스릴 운명에 처하여 범죄자들을 위한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온 하늘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아담의 모든 가족들은 반드시 죽어야만 하였다. 그 때 나는 자애로운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분의 얼굴은 슬픔과 동정의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곧 그분께서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지극히 찬란한 빛으로 가까이 나아가시는 것을 보았다. ... 그분은 세 번이나 아버지를 두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갔다 나오셨는데 그분이 세 번째 그 빛에서 나오실 때에야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그분은 곧이어 천사들의 합창대에 잃어버린 인간들을 위하여 피할 길이 마련되었음을 알리셨다. 즉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께 간청하여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어 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스스로 죽음의 선고를 받으심으로써 저들이 그분의 피 공로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순종함으로 저들이 쫓겨났던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는 일을 하시도록 승락을 받았던 것이다. -초기문집, 126.

곧 나는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 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고통과 고민 가운데 눌려 있던 그 무리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유 롭게 풀렸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 위에 비추었다. ... 모든 걱정과 근심의 흔적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각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건강미가 넘쳐 흘렀다. ... 이 빛과 영광은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시련을 겪은 신실한 무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었다. -초기문집, 272, 273.

11월 4일(화)

그는 우리의 구세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1)

그분의 생애에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지위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인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 사람들이 충성심을 얻거나 존경심을 요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어떤 수단도 예수님께서서는 사용치 않으셨다. 그분께서 출생하시기 여러 세기 전에 그분에 관하여 다 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사 42:2, 3). -치료봉사, 31.

마음과 뜻과 심령으로 하여금 정욕을 이기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살아 계신 구세주와 개인적으로 접촉함으로 된다. 방황하는 자에게 그를 붙들여 주실 전능하신 손과 그를 붙잡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의 무한하신 인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라 -실물교훈, 388.

아, 고통을 더욱 심하게 해 주는 말은 한 마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죄악 생애에 지쳐 있으면서도 벗어날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구주를 알려 주라. 그의 손을 잡아 주고, 그를 일으켜 주고, 그에게 용기와 희망의 말을 해 주고, 그를 도와서 구주의 손을 붙들게 해 주라. -치료봉사, 168.

사람이나 사단이 장벽을 세울 수는 있지만 믿음이 뚫을 수 없는 장벽은 없다.

믿음으로 페니키아 여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인 장벽에 맞섰다. 낙심하지 않고 의심하게 만드는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주의 사랑을 믿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구원의 축복은 모든 영혼을 위한 것이다. 자신의 선택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시대의 소망, 403.

11월 5일(수)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심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히 12:6)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절과 패배처럼 보이는 것에서 승리를 가져오실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대신 보이는 것만 바라볼 위험에 처해 있다. 불행이나 재앙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잔인하다고 비난하기 쉽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면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없애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신다면, 우리는 슬퍼하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징계가 그분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이며, 고난의 채찍 아래서 그리스도인은 때때로 실제적인 봉사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님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력이요, 연합 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을 저항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와야 하나 인간은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와 협력이 없이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없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인간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통하여 일하신다. -사도행적, 481, 482.

11월 6일(목)

하나님의 채찍은 축복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시 4:12)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수 없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진해서 행하게 되기를 자원한다면 구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성취하실 것이며 “모든 이론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과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실 것이다(고후 10:5).

강하고 균형잡힌 품성을 이루고자 하는 자나 잘 균형잡힌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것을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일을 하여야 한다. 이는 구세주께서는 분별된 봉사를 받으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뜻을 배우고 그 교훈을 순종하여야 한다. ...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온전하게 하신다. 그리고 믿는 자는 날마다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복음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숭고한 실험을 해내고 있다. -사도행적, 482, 483.

하지만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지 모른다! 우리는 그것을 원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어둠 속에서 힘이 다할 때까지 맹목적으로 씨름하지만 아무런 위로나 구원을 얻지 못한다. ...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낙심한 가운데서 지내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머리를 들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 복되신 구주께서는 그 눈이 눈물로 어리어 그분을 분별치 못하는 많은 사람의 곁에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허락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고민과 비탄과 시련을 향해 열려 있다. -산상보훈, 11, 12.

11월 7일(금)

그분께서 네 찌끼를 청결케 하시리라

“내가 또 나의 손을 네게 돌려 너의 찌끼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잡물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사 1:25)

감당하기 심히 어렵고 가혹하게 보이는 시련이라도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임이 판명될 것이다. 세상의 쾌락을 앗아가는 혹독한 재난이 오히려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슬픔을 당하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를 구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결코 그분을 알지 못했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산상보훈, 10.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광스런 것이다. ... 많은 사람들은 장래를 위하여 분명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그들의 생애는 불안정하다. 그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그들은 염려와 불안을 갖게 된다.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애는 순례자의 생애임을 기억하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를 위하여 계획을 세울 지혜가 없다. 우리의 장래를 풀지어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빛나는 장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는 중에 완전한 실패를 한다. 하나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게 하라. ...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볼 수 있고, 그들이 그분과 협력함으로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지도받기를 바라게 될 바로 그 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치료봉사, 478, 479.

하나님께서 영혼을 청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깨끗케 하시는 분이시다. 풀무불의 열기 속에서, 그리스도인 품성의 참된 은과 금으로부터 찌꺼기는 영원히 분리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시험을 살피고 계신다. 그분은 고귀한 금속이 그분의 신령한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이것을 청결하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 하나님의 청결케 하시고 깨끗케 하시는 일은, 그분의 종들이 겸손해지고 자아에 대해 죽음으로 그들이 활동적인 봉사에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들의 눈이 그분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기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4권, 86.

11월 8일(안)

그분께서 책망하심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회개하라”(계 3:19)

주님께서서는 그대가 그분의 하늘 왕국에 적합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보셨다. 그분께서는 고통의 용광로에 그대를 소멸하기 위하여 남겨 두시지 않으셨다. 은을 세련시키고 정련시키는 자로서, 그대에게서 그분의 형상이 반사될 때까지, 정련되는 과정을 바라보시며 그대를 주목하고 계셨다. 고통의 불꽃이 그대를 향하여 타오르고 때때로 그대를 삼켜 버릴 것 같을 때에라도, 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그대가 그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승리할 때와 마찬가지로, 크시다. 용광로는 소멸하고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련시키고 정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회증언 2권, 269.

그러므로 우리는 이생에서 실망과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 해서 탄식하고 슬퍼하지 않도록 하자. 만일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시련을 견디도록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쓴 잔을 마시되, 그것을 우리의 입술에 대주는 것은 아버지의 손임을 기억하자. 낮에는 물론이요 흑암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도록 하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을 수 있지 않은가? ... 갈바리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을 기억할 때, 고통의 밤에서까지도 어찌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마음과 음성을 높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교회증언 5권, 316.

성도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침을 받은 후에도, 그분의 택하신 자들은 개별적으로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개인적인 고난이 닥칠 것이지만, 그 용광로는 금이 타지 않도록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지울 수 없는 표가 그들 위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호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숨기셨는데, 그들의 목적지가 기록되어 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46.

11월 9일(일)

그분께서 나를 돌보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벧전 5:7)

환난을 당하는 자나 억울한 학대를 당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그대들은 마음이 강철같이 냉혹한 자들에게서 돌아서서 그대들의 요구를 그대들의 조물주께 아뢰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에게 나아가는 자는 한 사람이라도 거절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하나라도 허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늘 찬양대의 찬미 소리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인간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가 골방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쏟아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님의 보좌에 상달 된다. 이러한 기도가 비록 인간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침묵 속에 사라질 수도 없고, 바쁘게 돌아가는 업무 때문에 사라지는 일도 없다. 아무것도 심령의 소원을 침묵시킬 수 없다. 심령의 소원은 거리의 소음과 군중의 혼란을 벗어나 하늘 조정에 상달 된다. 우리의 간구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며 우리의 기도는 들어 주시는 바 된다. -실물교훈, 174.

시련의 그림자로 우리 자신의 길이나 다른 사람의 길을 어둡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서는 우리가 모든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동정 어린 귀를 기울여 주실 구세주가 계시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짐을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수고가 힘들거나 시련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

살아 있는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그대들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에서 분리하여 그대들의 지상 생애에 천국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전진하는 때 발자국마다 밝은 햇빛이 비쳐질 것이다. 원수가 영혼을 어둠으로 덮으려 할 때, 믿음을 노래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들은 스스로 빛 가운데서 노래하고 말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233, 234.

11월 10일(월)

그분께서는 버리지 않으실 것임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94:14)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 된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은 슬픔을 읽으신다.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어린 양들 중 하나라도 다치면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연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모든 양들과 그분의 양떼들 중 모든 어린 양의 고통은 동정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와서 닿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도달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가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뱀부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니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치 이 지상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을 돌보신다. -교회증언 5권, 346.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가까이 인도하시며, 시험과 시련을 통해, 그들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여주시고, 유일한 도움과 보호자로서 그분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심으로써, 저들을 그분께로 가까이 이끄신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들은 모든 비상사태를 위해 준비되어 있고, 책임 있는 직분을 맡을 수 있으며, 저들에게 주어진 능력을 통하여 위대한 목적들을 성취시킬 수 있다. -교회증언 4권, 86.

그분께서는 지키는 천사들을 보내심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시 91:11)

하늘은 그 기초가 땅에 확고히 박히고 그 꼭대기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에 연결된 신비스러운 사다리로 인해 땅과 가까워져 있다. 천사들은 이 빛나는 광명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곤궁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전달하고 축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인간 자녀들에게 가져다 준다. 이 빛의 천사들은 영혼의 주위에 하늘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영원한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린다. 우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영적인 눈으로만 하늘의 사물을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귀로만 하늘의 음성들의 조화를 들을 수 있다. ... 계속하여 천사들은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과 담화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왔다. 거둬들여 천사들의 격려의 말은 충실한 사람들의 낙담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세상의 사물을 초월하게 하여 승리자들이 크고 흰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받게 될 흰옷과 면류관과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였다.

시련과 고통과 유혹을 당하는 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천사들의 하는 일이다. 천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이들을 위해서 끈기있게 일한다. -사도행적, 153, 154.

천사들이 샘 근원에서 마시는 동안 지상의 성도들은 보좌로부터 흘러 나는 맑은 강, 우리 하나님의 도성을 기쁘게 하는 이 강에서 마신다. 오, 우리가 다 하늘과 땅이 이렇게 가까이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 우리의 찬양이 하늘 천군의 찬양대에 의해서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기억하자. -교회증언 6권, 366, 367.

강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신 31:6)

어떤 계통의 일이나, 성공을 하려면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일생의 참된 성공을 위해서는 그 노력에 합당한 목표를 마음 속에 굳게 간직해야 한다. 그런 목표가 청소년들 앞에 놓여져 있다. 현 세상에 복음을 전한다는, 하늘이 정해진 목적은 어떤 사람의 마음에도 호소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목적이다. 그리스도의 감동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목적을 위한 노력의 문이 열린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하여 가지신 목적은 우리의 한정된 통찰력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또한 높은 것이다. ... 다니엘이 유대의 가정에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연구하고 충성된 봉사에 대하여 배우며 자라나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도, 또한 장차 입법 회의와 법정과 궁정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교육, 262.

만일, 그대가 가지고 있는 회의와 공포를 골똘히 생각하고 또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분명히 깨달을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은 더해지고 더욱 깊어질 뿐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의 현실대로 힘없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능하시며 만물을 통찰하시며 또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대의 모든 소원을 아뢰면, 그분께서 그대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대의 마음과 온몸에 빛을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이것은 그대의 영혼이 신실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복음 교역자 320, 321.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사도행적, 476, 477.

11월 13일(목)

그분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출 6:7)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하며 우리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옛날 그분의 백성에게 하셨듯이 우리를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무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하는 자들은 모두 때때로 의심과 불신에 시달릴 것입니다. 때로는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들이 길을 가로막아 낙담하는 자들을 절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네 의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하신다. 너무나 어려워 보이고, 영혼을 두렵게 만드는 어려움도, 그대가 순종의 길을 따라 전진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한다면 사라질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437.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더불어 그분의 엄격하고 공평한 정의에 대한 가장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는 히브리 백성의 역사에서 드러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들을 내려 주셨었다. ... 그러나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한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였던가! -부조와 선지자, 469.

가까이 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는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저희가 동등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에게 보통 말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지상 통치자의 알현실에서 감히 하지 못할 행동을 하나님의 집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스랍들이 예배하고 그의 앞에서 천사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그분께서 보시는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참으로 그분의 임재를 깨닫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상 중에 하나님을 본 야곱처럼 “두렵도다 이 곳이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고 부르짖을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252.

11월 14일(금)

그분께서 원수를 밀어내실 것임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신 33:27.

우리 앞에는 위기가 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모두 깨어 자기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앞길에는 원수가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를 경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언의 신을 통해 주신 주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또 현대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따라 생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큰 기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또 그분은 교회에게 보내는 증언들과 우리의 현재의 의무와 현재의 입장을 명백히 깨닫게 하는 여러 서적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주신 경고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그 경고를 소홀히 여긴다면 장차 무엇이라 핑계할 수 있겠는가? -복음 교역자, 308.

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신처를 찾을 때까지는 영원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도피자가 방황과 부주의로 인하여 살 수 있는 유일의 기회를 빼앗기는 것처럼 지체함과 무관심이 영혼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 대적 사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으며 자신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한 피난처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간절히 피난처를 찾지 않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의 먹이가 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517.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에 자갈을 물리시고, 불꽃 가운데서 그분의 충성된 증인들과 함께 다니셨던 그분께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 그분께서는 울며 통회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치료봉사, 90.

11월 15일(안)

그분께서는 우리의 방패와 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와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
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신 33:29)

피로 물든 임마누엘의 군기 밑에서 봉사하
는 자는 때때로 초인간적인 노력과 오랜 인내
심을 요하는 일을 하여야 할 때가 있다. 그러
나 십자가의 군병은 최전선에 서서 뒤로 물러
설 줄을 모른다. 적이 공격을 해올 때면 요새
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거룩한 말씀의
언약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 눈 앞에 있는 의
무를 행하기에 족한 능력을 얻는다. 그리하여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할 필요를 깨달으면
승리할지라도 그것으로 자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능하신 분의 손에 더욱 매어달린다.
이 능력을 의지함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
깨울 수 있도록 구원의 기별을 힘 있게 소개
할 수 있게 된다. -복음 교역자 16.

바울은 높은 지적 재능을 소유한 한편 그의
생애는 희귀한 지혜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이
능력은 그에게 민활한 마음의 통찰력과 동정
심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가까
이 접촉하여 그들의 선한 본성을 일깨우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감명을 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인에 대한 열렬한 사랑
으로 충만하였다. ...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길
이 때 발걸음마다 그들은 사단의 회의의 반대
를 당하겠고 날마다의 투쟁에 참가해야 한다
는 사실을 알았다. ... 그러나 그는 또한 십자
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영혼
을 회개시키기에 족한 능력을 얻고 그들로 모
든 죄악의 유혹을 물리치게 할 수 있도록 하
나님의 능력으로 적응시키심을 입을 수 있다
는 것을 알았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그
들의 갑옷을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전쟁의 무기로 삼을 때에 그들은 원수의 공격
을 물리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받게 될 것이
다. -사도행적, 307.

11월 16일(일)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실 것임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사 42:4).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것들이 사람들에게 의
해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지 확히 아
신다. 그분의 자녀들은 아무리 심한 모욕과 경
멸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신뢰를 보이며 조용
히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다. 그것은, 드러나
지 아니할 비밀이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
는 자들이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분께 높
임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 아벨은 순교
자가 되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노아는 광신자요
민심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조소를 받았다. ...
“또 어떤 사람은 희롱과 채찍질을 받을 뿐 아
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
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
자들은 욕을 먹고 뺨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들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국
외로까지 널리 퍼져 나갔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은 이 대열에 가담하여 동일한 사업에
투신해야 하며, 그 사업의 원수들이 진리를 대
항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를 위하여 일함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리가 정면에 나
타남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
해 그것이 연구와 검토의 주제(主題)가 되기를
원하신다. 사람들의 마음은 동요되어야 한
다. 따라서, 모든 논쟁과 비난, 그리고 양심의
자유를 속박하기 위한 모든 시도는 깨우지 않
으면 잠들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일깨워 주는 하
나님의 수단이다. -산상보훈, 32,33.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 사람
은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시험에 넘어질지 모
르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생명을 속량물
로 바친 그 사람을 결코 버리고 돌아서지 않
으신다. 만일,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면
... 시험을 당하여 마치 벼랑 끝에서 있는 것
처럼 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하여 천사들이
빨리 날아다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산상
보훈, 118.

그분께서 네 손을 잡으시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사 42:6)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배역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굳게 붙드시는 그분의 성체가 되며, 그분은 그분의 권위 외의 어떤 권위도 그 성체에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와 같이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진 영혼은 사단의 공격에 난공불락이 된다. -시대의 소망, 324.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잠 18:10). -산상보훈, 119.

사람이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것보다 더욱 속절없이 보이는 것이 없지마는 실상은 그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연구와 그분께서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장 약한 사람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 수 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결코 떠나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 그리스도께 가장 많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그분을 가장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날에 그분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이다. -치료봉사, 182.

영광의 천사들은 주는 일, 즉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사랑과 끊임없는 보호를 주는 일에서 저희의 기쁨을 찾는다. 하늘의 천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호소한다. 그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늘 궁정의 빛을 가져온다. 그들을 부드럽고 인내성 있는 봉사로 사람들의 심령을 감화시켜서 잃어버린 인류를 그들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이끈다. -시대의 소망, 21.

그분께서 암흑을 빛으로 만드실 것임

“내가 소경을 그들의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첩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사 42:16)

그리스도인들이 슬픔과 역경과 책망에 처하여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들은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과 악한 정욕과 세속적 쾌락에 대한 사랑은 모두 정복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입증하시고자 우리에게 어려움을 보내시며 이와 같은 사악함이 우리의 품성속에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정복자가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신성에 참여한 자가 되어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다. ... 고난과 십자가, 시험과 역경, 다양한 우리의 시련들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성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곳간에 알맞은 인물들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교회증언 3권, 115.

[우리 주님께서] 우리 중에서 이런 모본을 보여 주셨는데도 우리는 시련과 비난과 수치와 고통에 어찌 그리도 민감한가? 그분의 고통에 동참하기를 즐기지 않는 사람치고 누가 그분의 즐거움에 들어가겠는가? 왜 좋은 주인이 자신을 위해 이기심 없이 짊어진 모욕과 수치와 비난을 짊어지기 싫어하는 것일까! 왜 그 좋은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그것을 통해 그가 결국 무한히 크고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될 그 모욕과 희생의 삶을 회피하는 것일까! 내 마음의 생각은 이렇다. 나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케 하소서, 그리하여 결국 그분의 영광에 동참케 하소서. -교회증언 2권, 491.

허망한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 좋은 평판이나 나쁜 평판이 나를 막론하고 그대의 구주를 좇으라. -교회증언 2권, 237.

11월 19일(수)

그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임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출 6:6)

성경 전체 가운데 논의된 중심 주제는 구속의 경륜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희망에 대한 첫 암시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계 22:4)고 기록된 마지막 영광스런 약속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각 권 각 면에서 우리는 인류를 향상시키는 놀라운 주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고전 15:57)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

이러한 사상을 파악한 사람의 눈앞에는 연구의 무한한 분야들이 전개되어 있다. 그러한 사람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구속의 학문은 모든 학문 중에도 으뜸 가는 학문이다. 그 학문은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타락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연구하고 있는 학문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주의를 끌고 있는 학문이며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영세 전부터 감취었”던 목적에 관련된 학문이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영원토록 무궁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종사할 수 있는 최고의 연구 과목이다. 그것은 다른 어떤 연구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소생하게 하고 심령을 고상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125, 126.

아는 능력과 사랑하는 능력을 갖도록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은 채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 우리는 그분의 따뜻한 손을 붙잡고 사랑으로 가득한 그분의 마음을 의지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교육, 133.

11월 20일(목)

그분께서는 그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끄심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요 12:32)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다. 사람뿐 아니라 지구도 구속함을 받아 순종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거처가 된다. 육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占有)하기 위하여 분투하여 왔다. 이제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단 7:18). -부조와 선지자, 342.

참된 교육의 목적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다. 인간의 마음은 잘 균형되었고 그 온 몸의 능력은 모두 잘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타락과 그 결과는 이 선물들을 그르쳤다. 죄는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고 거의 말살시켰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인간에게 유예의 생명이 허락되었다. 인간을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목적이다. 부모와 교사가 청소년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협력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전 3:9)다. -부조와 선지자, 595.

구속이라는 주제는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할 주제이며, 그 깊이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놀라운 주제를 다 이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대들 스스로 원천으로 가서 신선한 물을 마음껏 마시라. 구원의 샘에서 마음껏 마심으로 예수님께서 그대 안에서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게 하라.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편면, 528.

11월 21일(금)

여호와께는 풍성한 구속이 있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시 130:7)

사람이 하나님의 정부에 반역할 때까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자유스러운 교통이 있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죄가 하늘과 땅을 분리시켰으므로 사람은 창조주와 교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소망없는 상태에 내버려지지 않았다. ... 만일 그분께서 자신의 공로로 죄가 만든 깊은 구렁에 다리를 놓지 않으셨더라면 섬기는 천사들이 타락한 인류와 교통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무한하신 능력의 근원과 연결시키신다. -부조와 선지자, 184.

부조들의 시대에 있어서의 거룩한 예배에 관련된 희생 제물들은 구세주의 오심을 영원히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온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성소 봉사의 모든 의식이 그러하였다. 성막과 후에 그것을 대신한 성소의 봉사에서 백성들은 날마다 예표와 그림자란 방법으로 구세주이시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계된 큰 진리를 배웠고 매년 한번씩 그들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사건들과 우주가 죄와 죄인들로부터 정결함을 입을 최후의 사건으로 이끌어 갔다. -선지자와 왕, 684, 685.

메시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야 하셨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류는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남녀들은 점점 타락할 것이다. 생명과 능력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나누어 받아야 한다. 인간의 필요를 다른 방법으로는 채울 수 없었다. -선지자와 왕, 693.

11월 22일(안)

시온이 구속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속이 되고 그 귀정(歸正)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사 1:27)

우리는 장래 즉 복된 하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손수 그리신 광경인 미래의 영광의 계시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 계시들은 그분의 교회에게 귀중하다.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성읍의 문어귀에 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고 그분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 자들에게 주어질 정중한 환영사를 들을 수 있다. ...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세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싸움은 끝난다. 환난과 투쟁은 종식된다. 구속받은 자들이, 죽임을 당하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어린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진동시킨다. -사도행적, 601, 602.

불법이 되는 죄를 버릴 때는 언제나, 사람의 생애가 율법과 일치되고 완전히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씀의 빛을 주의 깊이 연구하면, 양심의 소리 곧 성령의 활동이 전인, 곧 몸과 마음과 영을 구속하기 위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완전히 희생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난다. ...

성실한 그리스도인 남녀들은 각성한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에 관한 지식을 올바르게 알려 주기 위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그들은 젊은 회심자들에게 매우 요긴한, 성실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교훈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마지못해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바로 첫 경험이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 -교회증언 6권, 92.

11월 23일(일)

무덤으로부터의 구속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시 49:15)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우뢰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그분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깨어라, 깨어라,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고 외치신다.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 때에 온 세상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로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고전 15:55). 그리고 산의 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승리의 즐거운 합성을 울릴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부활한 무리 가운데 선 아담은 키가 크고 위엄 있는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조금 키가 작다. 아담과 그 후세의 백성들을 비교해 보면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다. 그 한 가지 점으로도 인류가 크게 퇴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하고 부활한다. ... 한 때 죄로 더러워져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 밖에 없이 되었던 썩을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4, 645.

가족이란 고리가 다시 연결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죽은 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는 부활의 아침을 생각할 것이다. 조금 후에 우리는 그의 아름답게 단장한 왕을 볼 것이다. -시대의 소망, 632.

11월 24일(월)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에 목자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강하고 부드러운 애착심이 목자를 그의 돌보는 양무리에 연합시킨다. 아무리 양떼가 클지라도 목자는 모든 양들을 각각 알고 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며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은 응답한다.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기록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양 무리를 아신다. ...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모두 이름대로 아신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자의 이름을 아신다. 그분은 때때로 그분의 종들에게 그분의 한마리 양을 찾도록 어떤 도시, 어떤 거리, 또 그 어떤 집으로 가도록 지시하신다.

모든 영혼은 마치 그가 구세주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유일의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에게 잘 알려진다. 사람 하나 하나의 고민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도움을 구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사무친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그분께 이끌기 위하여 오셨다. 그분은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며 그분의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분에게 나아가도록 한다. 많은 사람들은 나아가기를 거절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누구인지 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누가 그분의 부르심을 즐겁게 듣고 그분의 목자와 같은 돌보심 아래 오기를 원하는지 아신다. ... 그분은 각 사람을 마치 이 지구 표면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돌보신다. -시대의 소망, 479, 480.

11월 25일(화)

그분께서 궁핍한자를 구원하실 것임

“저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시 72:12)

오늘날에도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사람처럼 악한 영의 권세에 정말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고의적으로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을 사단의 지배에 맡기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악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악습과 친근해 지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미혹당하므로 그는 자기의 의지보다 더 강한 의지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자아를 마침내 발견하게 된다. 그는 그 신비한 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은밀한 죄와 강력한 정욕은 그를 마치 가버나움의 귀신들린 사람처럼 속절없는 포로로 만들 것이다.

그렇지라도 그의 상태는 절망적이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의없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각 사람은 자신이 어떤 능력으로 지배를 받을 것인지 선택할 자유가 있다.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부도덕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없다. ... 영혼이 필요를 느끼고 외치는 소리는, 그것이 비록 말로 표현되지 않을지라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단의 능력이나 자신의 본성의 연약한 상태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치료봉사, 92, 93.

세속적 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 주는 한편, 그들의 역적 필요를 언제나 명심하라. 그대 자신의 생애로써 구주의 보호의 능력을 증거해 주라. ... 주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피조물을 돌봐 주신다. 그분께서는 생애의 가장 무거운 짐을 지도록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가장 부드럽게 동정해 주시는 일 외에는 그분의 피조물들을 차별해서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기를 등한히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들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치료봉사, 198, 199.

11월 26일(수)

너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시 122:6)

그대가 모든 것을 그분께 바침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면 그대는 번창할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분께서는 그대를 떠나실 것이다. 그분의 손은 그대가 모으는 것보다 더 빨리 흠으실 수 있으시다. ... 우리 구주께서는 심지어 앓고 거두지도 앓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나 천부께서 기르시는 공중의 새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 백합화들은 단순하고 순진함에 있어서 하늘의 단장이 결여되어 있는 솔로몬의 모든 장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더 잘 어울린다. ... 그대는 그대의 천부를 신뢰할 수 없는가? 그분의 자비로운 약속을 의지할 수 없는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귀한 약속!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가? -교회증언 2권, 496, 497.

우리의 수명과 유용성은 세상 재물의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자신의 재물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사용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재산을 많이 쌓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재물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주어진 재물은 그리스도께 드려진 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창고, 낱아지지 아니하는 금고에 모아 두실 것이다. 이와 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께 향하여 부하며, 그의 재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주신 분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이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후하게 나누어 주며 겸손하게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항상 함께 하시므로 그의 모든 일에 평강과 안전을 느끼며, 그는 하나님의 미소를 지니고 그분의 형상을 띠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3권, 546.

11월 27일(목)

그분의 뜻을 행함은 성공을 보장함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수 1:8)

하나님께서서는 국가나 개인이나를 물론하고 모든 참된 번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율법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 -선지자와 왕, 500.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그분의 뜻을 그분께 돌려드리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식물을 무성하게 하시며, 건강을 주시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모든 축복은 그분의 풍성한 손길에서 나오며, 그분께서는 남녀가 십일조와 헌물들 곧 감사 제물과 자원하는 예물과 속죄 제물로 그분께 뜻을 돌려 감사를 나타내기를 바라신다. 그들은 그분의 포도원이 황폐한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재물을 그분을 섬기는 데 바쳐야 한다. -선지자와 왕, 707, 708.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알고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율법을 어기면 사단의 종이 된다.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높은 경지에 오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죄악과 타락의 끝없는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도 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95.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방법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저런 방법으로 시험하신다. 그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분의 풍성한 선물을 주심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은총을 거두심으로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분은 부자들이 시여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지 보시고자 그들을 시험하신다. 사람이 이 선물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더 큰 책임들을 맡기실 수 있다. -교회증언 5권, 261.

11월 28일(금)

남은 무리에게 성공이 약속됨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속 8:12)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에 있어서 오늘날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는 고대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늘 천사들과 연합하여 신속히 세상의 황무지들을 점령하고 있으며 그들의 수고의 결과로 귀중한 영혼의 많은 결실을 가져오고 있다. 오늘날, 전에는 없었던, 헌신한 교회를 통한 성경상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은, 여러 세기 전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각 시대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의 교회에게 “내가 … 네게 복을 주어 …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창 12:2) 허락에서 예표된 은혜를 사람의 자손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포로 되었던 땅에서 돌아온 이후의 세기들 동안에 크게 성취되어야 하였다. 오늘날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온 세계가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였다. 굴욕적인 방랑의 세월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스가랴를 통하여 다음의 보증을 은혜로 주셨다. “내가 시온에게 돌아왔은즉 …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이 의의 원칙을 실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세에 있어서와 영적인 면에 있어서 풍부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다. -선지자와 왕, 703, 704.

11월 29일(안)

고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예증임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겔 36:29, 30)

이스라엘을 교훈하기 위하여 신명기에 세워 둔 원칙들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한다. 참된 번영은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를 계속하는데 달려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동맹함으로 원칙을 타협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어느 정도 세상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위험이 항상 있다. 그러나 비록 이와 같은 행동이 큰 이익을 줄 것처럼 보이거나 항상 영적 손실로 끝난다. -선지자와 왕, 570.

주님께서서는 만일 그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며 땅은 소산을 낼 것이며 들의 나무는 과실을 맺을 것이라고 이스라엘과 언약하셨다. 그들의 타작이 포도 수확 때까지 이어지고, 포도 수확이 파종기까지 이어지며, 그들이 풍성한 양식을 먹고 그들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약속하셨다. ... 그러나 그들이 그분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그분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그들을 대하실 것이다. 그분의 저주가 축복을 대신할 것이다. 주님께서서는 저들의 강한 자부심을 꺾으시고, 하늘을 철과 같이 땅을 놋과 같이 만드실 것이다. ...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재물을 붙들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이 그것을 홀으실 때 놀라 당황할 필요가 없다. ...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치 않는다면 그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홀으실 수 있으시다. -교회증언 2권, 661, 662.

11월 30일(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성령의 부어 주심이 약속됨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겔 39:29)

그리스도께서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계실 동안에는 그분의 임재하시는 빛을 가릴 수 없으며 그 빛이 어두워지게 할 수 없다. 반대로 날마다 영혼을 둘러싼 이기심과 죄악의 안개가 의의 태양의 밝은 광선에 의하여 흩어지게 될 때 그 빛은 점점 더 밝게 빛날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134.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에 성령의 선물을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처음 제자들에게 해당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나 여러 다른 약속들처럼 이 약속도 조건하에 주신 바 된다. 주의 약속을 요구할 것으로 믿고 공언하는 자들이 많다. 저들은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말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한다. 저들은 거룩한 능력의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복종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시대의 소망, 672.

성령의 약속은 어떤 시대나 어떤 족속에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의 거룩하신 감화가 세상 끝날까지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오순절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을 주님과 그분의 사업에 완전히 헌신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께서는 권고자로 성결케 하는 분으로, 인도자로, 그리고 증인으로 임하셨다. 신자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더 분명하고 능력있게 구속주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증거하였다. -사도행적, 49.

12월 1일(월)

사람이 무엇인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시 8:3, 4)

사람은 죄로 인하여 매우 타락하였으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순결하시고 선한 본성을 가지신 분과 조화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사람을 속량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노력과 연합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요일 3:2)가 될 수 있을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4.

삼라만상은 하나님을 증거한다.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주의 경의와 신비를 볼 때에 무한한 능력을 시인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땅이 풍성한 산물을 내고 해마다 계속하여 태양의 주위를 운행하는 것은 지구의 고유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유성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손에 이끌려서 하늘의 궤도를 돈다. 만물에는 신비로운 생명이 충만하다. 그것은 곧 무한히 큰 공간에 무수한 세계들을 붙드는 생명이고 또한 여름날 미풍에 떠 다니는 작은 곤충을 살피고, 제비가 날게 하고,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모이를 주어 먹이고 꽃봉오리를 피게 하며 꽃에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들이다. -교육, 99.

마음이 몹시 피로할 때, 시련에 무겁게 눌릴 때, 장애물을 이길 수 없는 듯이 생각될 때, 인생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고 그 아름다운 희망이 그림의 떡처럼 허무하여지는 그런 처지와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란 없는 정숙함으로 각기 길을 달리는 별들의 교훈을 통하여 용기와 불굴의 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교육, 115.

12월 2일(화)

하늘과 같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렘 31:37)

하늘에 빛의 아치를 걸쳐 놓고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창 9:16)의 표이다. 또한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의 표인 것이다.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가 햇빛과 소낙비의 결합으로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생기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 -교육, 115.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역시 그분의 지으신 만물들을 붙드시는 일을 하고 있다. 맥박이 뛰고 호흡이 계속되는 것은 한 번 움직여진 기계 조직이 그 고유의 세력에 의하여 활동을 계속하기 때문이 아니다. 호흡 하나하나, 심장의 고동 하나하나 우리의 생명과 활동과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증거인 것이다. 작은 곤충으로부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생물은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살고 있는 것이다. ... 모든 천연계를 통하여 일하고 만물을 유지하는 위대한 힘은 일부의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한갓 보편적인 원칙이나 일종의 가동시키는 에너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시지만 개체를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예수님께서서는 구주로서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구주로서 승천하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모양을 가진 구주 그대로 하늘 궁정에서 중보하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인자 같은 이가”(단 7:13)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것이다. -교육 131, 132.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만이 치료할 수 있다. 마치 나무에 수액이 흐르고 체내에 피가 흐르듯이 이 사랑이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사람만이 상한 심령을 회복하게 할 수가 있다. -교육 114.

12월 3일(수)

하늘이 그분을 찬양함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와 이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시매 지음을 받았음 이로다”(시 148:4, 5)

해, 달, 별, 견고한 바위, 흐르는 시냇물, 광대 무변하고 항상 넘실거리는 대양은 모든 인간이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교훈들을 가르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90.

천연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교훈으로 가득 차 있다. 바르게 이해만 한다면 이러한 교훈들은 창조주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천연계에서 천연계의 하나님을 가리켜 주며 마음을 깨끗이 씻어 주는 단순하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동시에 하나님과 밀접한 접촉을 갖게 한다.

위대하신 교사께서는 천국의 문턱을 빚으로 환하게 밝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천연계에 분부하신다. 이에 따라 천연계는 창조주의 분부를 수행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운 심령에게 일월 성신과 키 큰 나무들 및 들에 핀 꽃들은 권고와 충고의 말을 전해 준다. 씨를 뿌리는 것은 영적으로 씨를 뿌리는 것을 연상케 한다. 나무는 질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힐 수 없는 것과 아울러 질이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힐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 곳곳이 서 있는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 천연계에 내포된 사물들의 의미를 말씀해 주실 때 참된 종교의 과학은 영감을 주어 천연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의 관련성을 설명해 준다.

제비와 두루미는 계절의 변화를 살핀다. 저들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자기네의 편의와 행복에 알맞는 기후를 찾아 한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한다. 이런 새들은 저들의 생활을 주관하는 법칙에 순종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천연계의 법칙에 순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8, 189.

12월 4일(목)

펼쳐진 하늘은 그분의 권력을 나타냄

“청컨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茫昧)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욥 8:8, 9)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교육에 있어서 성경이 첫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동시에 천연계의 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증거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미(美)의 애호가이시며 우리들에게 적합하게 만드신 세상에서 우리들의 평안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들과 땅에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우셨다. 우리들은 가을의 풍요한 들과 밝은 태양 광선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엿볼 수 있으며 그분의 미소를 찾아 볼 수 있다. 창조주의 손은 성곽처럼 생긴 바위들과 우뚝 솟은 산들을 만드셨다. 키 큰 나무들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자라며 온 땅은 촉감이 부드러운 푸른 잔디로 양탄자를 깔 듯 덮였고 여기 저기 관목들과 꽃들을 포기포기 심어 놓으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땅을 거무스레한 갈색으로 하지 않으시고 생생하게 푸른 나무들로 옷 입히셨을까? 그렇게 하신 것은 눈을 더욱 즐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창조의 기이한 능력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에 대한 증거들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찰 것이 아닌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일한 창조의 능력이 아직도 우주를 붙들고 천연계의 운행을 지속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은 모든 유성들이 자기 궤도를 따라 하늘 가운데로 운행케 하신다. 해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가 공전하는 힘이나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이 번식하는 힘은 본래 지구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식물이 번식하며 잎이 돋고 꽃들이 핀다.

온 천연계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자가 되도록 계획된 것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5, 186.

12월 5일(금)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존하심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느 9:6)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가르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분의 피조물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어떤 방법보다도 훨씬 쉽게 받아들여질 것이며 저들은 자신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과 천지를 만드신 참 하나님과의 차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 이러한 실물교훈 가운데는 이방인들이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단순성과 순결이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류의 학생들이 이 근원에서 비롯된 교훈들을 배울 필요가 있다. 천연계의 아름다움 자체가 영혼을 죄와 세속적인 매력에서 떠나게 하며 순결과 화평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땅을 경작하는 일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작업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저들로 천연계와 천연계의 하나님과 더불어 직접적인 접촉을 갖게 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가급적 우리 학교들과 연결된 장소에 큰 꽃밭들과 경작을 위한 넓은 땅들이 있어야 한다. ...

하나님께서서는 천연계에 그분의 말씀의 보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인간의 자녀들의 손에 두셨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실증되었으니 곧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물로써 하늘의 지혜와 영원한 진리와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된다. ... 정신이 최대한의 가능성에 이르도록 계발시키며 육체적인 힘이 생애의 실제적 의무를 감당하도록 훈련시키라.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가르치라.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우리들의 행복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을 위해서 죄가 있지 않을 세상에 더 아름다운 집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86~188.

12월 6일(안)

사람은 정직하게 지어졌음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라”(전 7:29)

사람은 외모나 품성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되었다.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본체의 형상”이시나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의 성질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중에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에는 매우 높은 키에 완전한 균형이 잡혀 있었다. 그의 용모는 건강한 혈색을 띠어 붉으스레하였으며 생기와 기쁨의 빛으로 빛났다. 아담의 키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키보다 훨씬 컸다. 하와는 조금 키가 작았으나 그의 자태는 고상하였으며 아름다움으로 충만하였다. 이 무구한 부부는 아무런 인공적인 의복을 입지 않았으며 저들은 천사들처럼 빛과 영광으로 둘러싸여 옷 입고 있었다.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이상 이 광명의 의복이 계속하여 저들을 둘렀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서는 친히 아담에게 한 반려자를 주셨다. ... 하와가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은 것은 그 여자가 머리로서 그를 지배하지 말 것이며 열등하여 그의 발아래 밟히지도 말 것이며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도록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 부조와 선지자, 45, 46.

저희가 하나님의 율법에 충성을 하는 한 알고, 즐기고, 사랑하는 저들의 능력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었다. 저들은 계속하여 지식의 새 보고를 얻고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행복의 샘들을 발견하고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고 끊임없는 사랑에 대한 차츰 더 분명한 관념을 얻고 있었을 것이었다. - 부조와 선지자, 51.

12월 7일(일)

그분께서는 지구의 원(圓) 위에 앉으심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풀셨고”(사 40:22)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시초부터 중말을 아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으며 죄가 만든 재난과 어두움과 폐허를 넘어서 그분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시 97:2). 그리고 이 사실을 우주의 거민들, 즉 충성스러운 자와 불충한 자가 모두 언젠가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신 32:4). -부조와 선지자, 43.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또한 우주의 크신 왕이기도 하다. 그분의 나라의 유익이 곧 우리의 유익이므로, 우리는 그 나라의 설립을 위하여 일해야 한다. -산상보훈, 107.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지존자(至尊者)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존경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말한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시 111:9).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칭호나 명칭을 경솔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도로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알현실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한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룹과 빛나고 거룩한 스랍들도 더할 수 없는 존경심으로 하나님의 보좌로 다간다. 그렇다면 유한하고 죄 많은 존재인 우리는 한층 더 경건한 태도로 우리의 창조주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않겠는가! -산상보훈, 106.

12월 8일(월)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심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렘 32:17)

지구가 그 창조주의 손에서 나왔을 때에는 아주 아름다웠다. 지구의 표면은 산과 언덕과 평원으로 규모있게 구분되었으며 그 사이에 맑은 강과 아름다운 호수가 산재하였고 그 언덕과 산들은 지금처럼 험준하거나 울퉁불퉁하지 않았으며 무시무시한 절벽과 무서운 깊은 구멍들이 있지 않았다. 지구의 뼈대가 되는 날카롭고 거친 바위 끝들은 비옥한 땅 아래 매장되었으며 어느 곳에 가든지 청청한 수목들이 무성하였다. 거기에는 몹서리쳐지는 높이나 불모의 사막이 없었다. 어느 곳을 향하든지 우아한 관목들과 아름다운 꽃들이 눈을 기쁘게 하였다. 높은 산들을 덮은 나무들은 지금 있는 어떤 나무보다 더욱 장엄하였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

하나님께서 풍성한 동식물을 땅에 살도록 내신 후에 창조주의 최고의 사업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기 적합한 사람을 창조하셨다. … 여기에 사람의 기원이 밝히 설명되었고, 또 거룩한 기록이 그것에 대하여 매우 명확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조금도 잘못된 결론을 내릴 이유가 없다. … 성군(星群)의 세계들을 높이 두시고, 들의 꽃들을 아름다운 솜씨로 물들이시고, 땅과 하늘을 그분의 능력의 경이로 채우신 그분은 아름다운 지구에 통치자가 될 사람을 세우심으로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업의 절정을 이루시려고 하실 때에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손에 합당하게 창조하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셨다. … 아담이 비록 진토로 창조함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4, 45.

12월 9일(화)

태초에 그분께서 기초를 놓으셨음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히 1:10)

크신 여호와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그분은 전 세계를 아름다움으로 옷 입히시고 사람에게 필요되는 것으로 그것을 채우셨으며 육지와 바다의 경이로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옛세 동안에 위대한 창조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그 지으신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창 2:2,3).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으로 이루신 사업을 보시고 만족히 여기셨다. 만물은 완전하였고, 거룩하신 창조주께 합당하였으며 그분은 피곤한 자같이 쉬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에 열매와 그분의 영광의 나타남을 기뻐하시는 자로서 쉬셨다. ...

우리 시조들의 가정은 장차 온 땅을 채우게 될 그 자녀들의 가정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 될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손수 아름답게 장식하신 그 가정은 호화찬란한 궁전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저들의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을 기뻐하며 저희 손으로 이룬 공사를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한 동산에 두셨다. 이것이 아담의 거할 집이었다. 푸른 하늘은 지붕이었고 아름다운 꽃들과 싱싱한 풀로 깔린 땅은 마루였고 아름다운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은 차양이었다. 그 집의 벽들은 그 위대하신 미술가의 작품인 가장 훌륭한 장식들로 드리웠었다. 거룩한 부부의 환경에는 모든 시대를 통한 교훈 즉 참된 행복은 교만과 사치의 방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하여 그분과 교제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47-49.

12월 10일(수)

하나님께서서는 그룹들 사이에 거하심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사 37:16)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을 수종하는 자가 천천이요 시위하는 자가 만만이나 되는 만왕의 왕이 거하시는 곳, 그 시위하는 영화로운 스랍들이 경배하고 저희 머리를 숙이는 영원한 보좌가 있는 영광으로 충만한 하늘 성소와 비교하면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건물 일지라도, 그 무한한 영광과 웅장함에 대한 극히 희미하고 미약한 반영에 불과하다. ...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궁전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그 기초가 되어 있다. 지성소에는 위대한 의의 원칙, 곧 전 인류의 심판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 둔 법대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그분의 피를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 낼 수 있고, 무한한 능력만이 성취시킬 수 있다. 그것은 하늘을 경탄과 경외감으로 충만케 하는 결합이다. 지상 성소에 있는 천사들이 존경하는 태도로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은 속죄 사업에 대한 하늘 천사들의 관심과 흥미를 보여 준다. 이것은 천사들이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죄인을 의롭게 하심으로 그분이 의롭게 되시는 것, 타락한 인류로 더불어 다시금 교제를 새롭게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멸망의 구렁이에서 구원하시려고 강림하시는 것, 저들에게 흠이 없는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시고, 일찌기 타락한 일이 없는 천사들과 연합시키사 그분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등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414, 415.

12월 11일(목)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통회하는 자의 마음에 거하심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
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
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
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
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시
고자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오랫동안 강권
해 온 것과 같은 어떤 특별한 일을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실현시킨 방법대로 그분의 제자
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다. 이론에 지나치
게 집착하므로 구주의 산 모본의 능력을 잃어
버린 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겸손하고, 자
아 부정적인 일꾼으로서의 그분을 시야에서
놓쳐 버렸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그분의 임재에
대해 새롭게 계시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
증언 8권, 317.

주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종살이에
서 구원하시고 허락의 땅으로 가는 여행에 있
어서 그들을 친절히 대하셨다. ... 광야를 통
하여 여행하는 동안 주신 언약은 “내가 친히
가리라”는 언약이었다. 이 보증은 모세로 하
여금 모든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
포하고 그들에게 저희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히 가르칠 수 있게 한 여
호와와 품성의 놀라운 계시가 수반되어 있었
다. -선지자와 왕, 312.

우리는 바람 그 자체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
결과를 봄으로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에
대한 성령의 역사도 그분의 구원하시는 능력
을 감각하는 자의 모든 행동에 나타난다. 하
나님의 영이 마음을 점령할 때에 생애는 변화
한다. 불순한 죄질 생각을 물리치며 나쁜 행
동을 버린다. 분노와, 시기와, 투쟁 대신에 사
랑과 겸손과 평화가 이른다. 기쁨이 슬픔의 자
리를 대신하고 따라서 얼굴은 하늘 빛을 반영
한다. 아무도 무거운 짐을 들어 주는 손을 보
지 못하고 하늘 조정에서부터 비치는 광선을
보지 못한다. 축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
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에 온다. -청년에게 보
내는 기별, 158.

12월 12일(금)

하나님의 거처는 구원받을 자들의 장래의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
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
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
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진주 문을 넓게 여시고 진
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
다.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 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찌기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
욱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
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
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하라” -각 시대의 대쟁투, 646.

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도성에
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 오는 것을 보았
다. 그 면류관에는 성도들의 이름이 각각 적
혀 있었다. 예수님께서서 면류관에 적힌 이름을
호명하시면 천사들이 그분에게 가져다 드렸
는데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친히 오른손으
로 그 면류관을 성도들의 머리에 씌워 주셨다.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서는 성도들에게 각
각 거문고를 나누어 주셨다. 지휘하는 천사가
먼저 시작하면 모두가 능숙하게 손을 놀려 거
문고를 타고 이에 맞추어 은혜로운 목소리로
아름답게 찬양의 노래를 불러 풍부하고 조화
된 곡조를 이루었다. 그리하여 나는 예수님께
서 구원받은 무리들을 도성의 문으로 인도하
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반짝이는 돌저귀들
을 잡고 뒤로 밀쳐 활짝 문을 열어 제치고 진
리를 사수해 온 열국들에게 들어오라고 명하
셨다. 도성 안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이 눈을
현혹케 하였다. 그들은 어디에서든지 넘치는
영광을 볼 수 있었다. -초기문집, 288.

12월 13일(안)

천사들의 무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함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히 12:22)

성경은 하늘 거민의 수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하나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속죄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 준다. ... 만왕의 왕 앞에서 시위하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자들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천천 만만의 천사들을 보았다. ...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 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그는 “오히려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고 한 말은 그 사실을 말해 준다. ... 구주께서는 그분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당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다. ...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와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 모르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와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 질 수 없다. -각 시대의 대쟁투, 511~513.

12월 14일(일)

천사들은 죄인에게 관심을 가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눅 15:10)

천사들은 저희 사령관의 발 앞에 부복하여 저희가 사람을 위한 희생이 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한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었다. 다만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만이 그를 도로 찾으실 능력을 가지셨다.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은 자가 되셔야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시게 되시면 그분의 힘은 저들의 힘과 같지 않게 될 것이고, 그분께서 고통당하실 때에 그분께 힘을 드리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분께 봉사할 것이었다. 또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려고 보내심을 받기로 되었다. 저들은 악한 천사들의 세력과 사단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저희 주위에 던져진 어둠으로부터 은혜의 신하들을 보호할 것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64, 65.

만일 그대가 그리스도와 교통하게 될 것 같으면 그대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평가하신 것처럼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대하여 품으신 사랑과 같은 깊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몰아내는 대신에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며 내모는 대신에 이끌어 들일 수 있게 될 것이다. ...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늘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천사들은 그대를 도와서 아무리 무관심하고 완고한 자의 마음을 가진자라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온 하늘은 즐거워하고 스랍과 그룹들은 금 거문고를 타며 인간 자녀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인자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찬양을 돌린다. -실물교훈, 197.

12월 15일(월)

천사들은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킴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

너희 바리새인들은 너희 자신이 하늘의 충애를 받는 자라고 생각하고 또 너희 자신이 너희의 의로써 든든하다고 생각한다. 만일 너희가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사명은 그대들에게 대한 것이 아님을 알라. 자신의 가난함과 사악함을 깨닫는 불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하늘의 천사들은 너희가 업신여기는 이 잃어버린 바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이들 중 한 사람이 내게로 들어오면 불평하고 조롱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개선(凱旋)의 노래로 하늘 조정을 울린다는 것을 알라. -실물교훈, 189, 190.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 주게 한다 -실물교훈, 149.

만일 잃어버린 양을 우리로 이끌어 오지 않으면 그 양은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죽게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구원의 손을 뻗쳐 주지 않기 때문에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 이 그릇된 길에 빠진 자들이 완고하고 분수 없는 자 같이 보일는지 모르나 만일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특전(特典)을 가졌더라면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심령의 고상함과 유용한 재능을 발휘했을지도 모른다. 천사들은 이러한 방황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긴다.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고 그들의 마음은 단히어 동정의 여지가 없지만 천사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보고 눈물을 흘린다. -실물교훈, 191, 192.

거룩한 도성에는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지구를 방문할 명령을 받은 모든 천사들은 금카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이 드나들 때마다 도성의 문 곁에서 있는 천사들에게 그것을 제시하곤 했다. -초기문집, 39.

12월 16일(화)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함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출 23:20)

마귀가 유혹하도록 자초한 자들은 스스로 그의 세력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면, 그들이 슬프게 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하여 올 것이다.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노획물을 잃어버리기 싫어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다투고 싸우게 되는데, 그 투쟁은 실로 치열하다. 그러나, 만일 실수한 자들이 계속해서 간구하고, 깊은 겸손으로 그들의 잘못을 고백할 것 같으면, 능력에 있어서 우월한 천사들이 승리를 거두어 그들을 악한 천사들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교회증언 1권, 301.

어머니가 하는 일은 자신들에게 흔히 중요하지 않은 봉사처럼 보인다. 그 일은 거의 인식을 받지 못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의 많은 할 일과 책임들을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의 날들은 작은 의무의 순환으로 점령되고 있으며 이 모든 의무들은 참을성 있는 노력과 자제와 재치와 지혜와 희생적인 사랑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어떤 위대한 사업의 성취만큼 그가 행한 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없다. 그는 다만 가정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 그는 자기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고생으로 여윈 어머니를 지켜보고 그가 날마다 지는 무거운 짐들을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이름이 비록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을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기록된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44.

비록 이 세상의 위정자들이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회의에 천사들이 대변자로 참가하는 일이 종종 있다. 사람의 눈으로 그들을 목격하고, 사람의 귀로 그들의 호소를 듣고, 사람의 입술로 그들의 제의를 반대하고, 그들의 권고를 조롱하고, 사람의 손으로 그들을 모욕하고 멸시해 왔다. -각 시대의 대쟁투, 632.

12월 17일(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봄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벧후 3:13)

그 들어가는 입구는 파수보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막혔을 뿐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 천사들이 경비하는 낙원의 문에 나타났다. 이 곳으로 아담과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아왔다. 그 곳에서 저들은 저들이 범법함으로 에덴에서 추방당한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의 맹세를 새롭게 하였다. 그러나 죄악의 조수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사람들의 악행이 홍수로 말미암는 저들의 멸망을 결정하였을 때에 에덴을 만드신 손이 그것을 지상에서 철회하셨다. 그러나 만물이 회복되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최후의 때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러운 단장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들이 불사의 활력을 가지고 생명 나무 아래서 쉴 것이다.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무죄한 세계의 거민들은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죄의 저주로 더럽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사업의 표본, 사람이 창조주의 영광스러운 경륜을 성취하였더라면 온 지구가 그러하였을 표본을 바라볼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 62.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시 이외에서는 아무 사람도 듣지도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음악과 노래가 있을 것이다. ... 거기서는 모든 능력은 발달되고 모든 재능은 증가된다. 가장 큰 사업은 수행될 것이요 가장 고상한 포부는 달성될 것이며 가장 높은 희망은 실현될 것이다. 거기에는 오히려 넘어야 할 새 높이, 감탄할 만한 새 경이, 이해해야 할 새 진리, 지, 덕, 체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목적이 생길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하나님의 자녀의 연구를 위하여 개방된다. -교육, 307.

12월 18일(목)

승리자가 함께 앉을 하나님의 보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은 아무리 연약한 영혼일지라도 도움을 구하기 위해 그분에게 오는 영혼을 감싸신다. 산 속의 보석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살고, 책망에도 끄덕하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의 도성은 이 땅에서 인도하심과 지혜를 위해, 그리고 상실과 고통 중에 위로와 소망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운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황금 문을 열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노래가 그를 환영하고, 그를 위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교회증언 4권, 328.

그대의 생애의 기념적인 일들이 기록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대가 최후에 승리자가 된다면, 그대의 노력, 그대의 자아 부인, 그대의 선한 말, 일관성 있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저들의 행실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후의 상급이 나누어질 때 구속받은 영혼들은 그대를 축복받은 이로 부를 것이며, 주님께서는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교회증언 3권, 246, 247.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한대로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61.

성도들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이끌려 올라갈 것이다. 그들은 거문고와 흰 예복과 면류관을 받고 도성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과 성도들은 심판석에 앉게 된다. -초기문집, 52.

12월 19일(금)

아브라함은 한 도성을 바라봄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히 11:10)

아브라함은 지상에서 “밭 불일만큼”도 소유를 얻지 못하였다. 그는 막대한 물질을 가지고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썼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을 그의 집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상 숭배자들인 그의 동족을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유업으로 약속하셨다. 그러나 그 자신이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아들의 아들도 그것을 얻지 못하였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매장지를 갈망하였을 때에 그는 그것을 가나안 사람에게서 사야 하였다. 약속의 땅에서 그의 유일한 소유는 막벨라 굴 속 바위를 잘라낸 무덤 뿐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하지도 않았으나 그것은 유대 백성으로 인한 가나안 점령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취되지도 않았다. ... 아브라함 자신도 그 유업을 나누어야 하였다. ...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불멸의 유업을 잠깐 보여 주셨고 그는 이 소망으로 만족하였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 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다”다.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부조와 선지자, 169, 170.

12월 20일(안)

그분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심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히 11:16)

죽은 악인들의 심판이 다 끝나쳐지는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도성을 떠나셨는데 성도들과 천군들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셨다. 예수님께서 큰 산에 내리시자 그 산은 그분의 발이 닿자마자 무너져서 큰 평지가 되었다. 그 때 우리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도성은 열두 기초로 되어 있고 열두 문이 한 쪽에 각각 세 개씩 있었으며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 우리는 “도성이다! 큰 도성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온다!” 고 외쳤다. 그 도성은 찬란한 광채와 영광을 발하며 내려 와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큰 평지에 놓여졌다. -초기문집, 291.

선지자는 죄와 모든 저주의 흔적이 없는 하나님의 도성 안에 있는 구속받은 자들의 거처를 바라볼 때에 큰 기쁨으로 부르짖는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그곳에서 선지자는 음악 소리를 들었는데 그 노래는 하나님의 계시를 떠나서는 죽을 수 밖에 없는 인간의 귀로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하지도 못할 그와 같은 음악과 노래였다. ...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리라” -선지자와 왕, 729, 730.

12월 21일(일)

성 안에 생명 나무와 생명 강이 있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가지 실과를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계 22:1, 2)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한다(히 11:14-16 참조).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양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의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뺀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 온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5.

나는 구원 받은 무리가 부복하며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의 변쩍이는 면류관을 벗어 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가 자애로운 손으로 그들을 일으키자 그들은 금 거문고를 타면서 어린 양의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생명 나무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는 일찌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는 자비로운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있느니라. 너희들은 모든 과일을 먹으라.” 생명나무 위에는 아름다운 과실들이 달려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유로이 따 먹을 수 있었다. 도성 가운데에는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수정처럼 맑은 생명강이 흘러 나왔다. 이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강의 양쪽 뚝에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열려 있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초기문집, 289.

12월 22일(월)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계 21:3)

우주의 모든 보좌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구 대상으로 펼쳐진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서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 간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으로 땅 위에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주민들의 지혜와 기쁨을 같이 나누게 된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숨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들을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만물 위에는 창조주의 이름이 기록되고, 모든 것에는 창조주의 능력이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우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 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7, 678.

12월 23일(화)

거기에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계 22:3)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 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선포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8.

자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리고 그들이 죽음의 옥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선지자는 부르짖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그 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뿔 것이며
병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선지자의 계시에서 죄와 무덤을 이긴 사람들은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담화한 사람처럼 하나님과 함께 자유스럽게 담화함으로 그들의 창조주 앞에서 행복하게 보인다. -선지자와 왕, 728, 729.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현혹된 채 나는 펜을 놓으면서 “오!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과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초기문집, 289.

12월 24일(수)

그분을 사랑하는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전 2:9)

그리고 요한은 죄악과 투쟁하고 있는 충실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허락이 있는 것을 들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 요한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과 사랑이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와 능력과 섞인 것을 보았다. 요한은 죄인들이 그들의 죄악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 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이심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대쟁투의 최고 절정 저편을 바라 본 요한은 시온에서 “이긴...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사도행적, 588, 589.

장래의 유업이 지나치게 물질적인 것처럼 생각되는 일을 염려하여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게 해 주는 바로 그 진리를 신령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보증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늘집에 관하여 전혀 무지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들이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의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깨닫게 될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4, 675.

하늘은 학교요, 그 연구의 분야는 우주요, 그 교사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이 학교의 분교가 에덴에 설립되었는데 후일에 구속의 경륜이 성취되는 때에 교육은 다시 에덴 학교에서 하게 될 것이다. -교육, 301.

12월 25일(목)

거기는 사망이 없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계 21:4)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쓰라린 투쟁을 통하여 극기하고 큰 실망을 경험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것은 그들에게 죄의 악함과 화를 가르쳐 그들로 죄를 미워하도록 하게 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자인 그들은 그분의 영광에 동참자가 되도록 되어 있다. 거룩한 계시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최후의 승리를 보았다. -사도행적, 590.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렬이 없고, 슬픔의 흔적이 없다. ...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76.

거기서 구속받은 자들은 그들을 구세주께 인도한 자들에게 인사하고 모두 연합하여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와 같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싸움은 끝난다. 환란과 투쟁은 종식을 고한다. 승리의 노래가 온 하늘을 충만하게 하자 구속받은 자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신 어린 양이 승리의 정복자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는 즐거운 노래로 그 뒤를 잇는다. -사도행적, 602.

12월 26일(금)

사람은 본래의 형상으로 회복됨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말 4:2)

오랫 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은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의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에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말 4:2 흠정역 영어성경).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저주받은 죄의 흔적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들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에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아, 얼마나 놀라운 구원인가! 그것은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고대하고, 열렬한 기대로 생각해 오던 것이었지마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어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 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팔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

그 광휘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욱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새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려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주어진다. 그리하여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모든 손은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게 되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가 흘러나오게 된다. -각 시대의 대쟁투, 645, 646.

12월 27일(안)

우리는 집을 건축할 것임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사 65:21)

새로 지음을 받은 세계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던 일과 즐거움을 갖게 될 것이다. 에덴의 생활은 정원과 들에서의 생활이 될 것이다. - 선지자와 왕, 730.

거기서는 사람이 잃었던 왕권을 회복하고 낮은 동물들은 다시 사람의 지배권을 시인하며 사나운 것은 온순해지고 무서워하는 것은 신뢰하게 된다.

무한한 안계와 표현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역사가 여기서 학도들의 앞에 전개될 것이다. 이 세상에 있어서도 학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유리한 입장을 통하여 광대한 역사의 분야에 대한 견해를 얻고 인간 사회의 사건들의 진행을 지배하는 원칙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안목은 여전히 어둡고 지식은 완전하지 못하다. 영원한 빛 앞에서 기 전에는 모든 것을 명백히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교육, 304.

나는 거기 있는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처럼 빛이 나고 보기에 매우 찬란한 진주로 아로새긴 네 기둥이 받치고 있었다. 이 집들에서 성도들이 살 것이었다. 집집마다에 금 시렁이 있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이 집에 들어 가서 저들의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서 그 시렁 위에 얹어 놓고 밭일을 하러 집 곁에 있는 들로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밭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같지 않았다. 영광스러운 빛이 그들의 머리 주위에 비치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

나는 온갖 종류의 꽃으로 가득 차 있는 다른 들을 보았다. 나는 그 꽃들을 따면서 “이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으리니”하고 외쳤다. 그 다음 나는 키가 큰 풀이 자라고 있는 들판을 보았는데 보기에 아주 훌륭하였다. 그 풀의 빛 같은 생생한 녹색이었고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듯 흔들릴 때마다 은 빛과 금 빛을 반사하였다. - 초기문집, 18.

12월 28일(일)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한 일을 같이 누릴 것임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임이며”(사 65:22)

천사들과 구원 받은 성도들은 무수한 악기 소리와도 같은 승리의 합성을 들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사단에게 고통 당할 염려가 없으며 다른 세계에 있는 거민들도 그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 초기문집, 290.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던 휘장이 제거되면 오늘날 우리가 현미경으로 잠깐씩 보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것이요, 오늘날은 만원경을 통하여 멀리 알아보는 하늘의 영광을 눈 앞에 볼 것이다. 죄의 상처가 제거되고 온 세계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속에” 나타나는 때에 얼마나 훌륭한 연구의 분야가 우리 앞에 열릴 것인가! 거기서는 과학의 학도가 창조의 기록을 읽을 것이요 악의 법칙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을 찾을 수 없다. 만물이 내는 소리의 음 악을 듣고 탄식의 소리나 슬픔의 나직한 울음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모든 피조물에 게서 한 가지 필적만을 볼 것으로 광대한 우주의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씌어진 것이 보일 뿐이요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 악의 흔적은 남지 않을 것이다. - 교육, 303.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사 32:18).

“다시는 강포한 일이 네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네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사 60:18).

12월 29일(월)

들짐승이 상하게 하지 않을 것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와 말이니라”(사 65:25)

그 다음에 우리는 온갖 짐승들로 가득 찬 들로 들어 갔는데 거기서는 사자와 어린양과 표범과 이리가 모두 완전히 화합하여 함께 거하였다. 우리가 그들 가운데를 지나갈 때 그 짐승들은 평화로이 뒤따랐다. 다음에 우리는 숲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숲은 이 세상에 있는 숲과는 전혀 달랐다. 그 숲 속에는 빛이 비치어서 숲이 온통 영광으로 환하였다. 나무가지들은 이리 저리 흔들거렸으며 모두들 “우리는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살 것이며 숲 속에서도 편히 잠잘 수 있으리라”고 외쳤다. 우리는 그 숲을 통과하여 시온산을 향하여 갔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 한 무리를 만났는데 그들도 그곳의 영광을 바라 보고 있었다. 그들의 두루마기 가장자리에 빨강계 테를 둘러 쓴 것이 내 눈에 띄었다. 그들의 면류관은 찬란하였고 그들의 옷은 깨끗한 흰색이었다. 우리는 저들과 인사를 나누었는데 나는 예수님께 저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물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그들과 함께 셀 수 없는 어린이들의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의 옷 가장자리에도 역시 붉은 데가 있었다. 시온산이 우리 바로 앞에 나타났고 그 산 위에는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는데 그 주위에는 일곱 개의 산들이 있고 그 산들에는 장미와 백합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그 어린이들이 그 산들의 꼭대기를 향하여 기어오르거나 혹은 저희의 작은 날개를 사용하여 날아 올라가서 시들 줄 모르는 꽃들을 따는 것을 보았다. 성전 주위에는 온갖 종류의 나무들이 있어서 그곳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회양목, 소나무, 전나무, 기름나무, 도금양나무, 석류나무, 그리고 알맞게 익은 열매의 무게로 고개를 수그린 무화과나무 등, 이러한 나무들이 그 둘레를 찬란하게 해 주었다. ...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나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초기문집, 18, 19.

12월 30일(화)

모두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것임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사 66:23)

순례자 동지들이여, 우리는 아직 세상일의 그들과 소요 속에 살고 있으나 멀지 않아 우리 구세주께서 구원과 안식을 주시려고 나타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복된 내세를 바라보자. 세상의 죄악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낙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다. 싸움은 곧 그치고 승리를 얻을 것이다. 곧 우리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분의 앞에서는 이 세상의 시련과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전 일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

구원 받은 민족들은 하늘의 율법만을 알게 될 것이다. 모두 찬양과 감사로 옷 입게 될 것이며 한 가족이 되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부르짖는 광경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연합하여 “다시는 죄도 없고 죽음도 없으리라”고 선언하실 것이다. -선지자와 왕, 731, 732.

태초에 아버지와 아들은 창조 사업을 마치신 후 안식일에 쉬셨다. ...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날인 창조의 안식일이 역시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연합하여 “매 안식일에” 찬양을 드리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시대의 소망, 769, 770.

12월 31일(수)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됨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계 22:6)

하나님의 교회는 악과의 오랜 투쟁의 가장 불우한 시대에 여호와와 영원한 목적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그분의 백성들은 현재의 시련 저편, 투쟁이 끝나고 구속받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미래의 승리를 바라볼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손으로 묘사된 광경인 이 미래의 영광에 대한 계시는 각 시대의 투쟁이 신속히 끝나고 약속된 축복들이 곧 모두 완전히 실현되려고 하는 오늘날 그분의 교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달 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엄위한”(아 6:10) 교회는 온 세상에 나아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선지자와 왕, 722~725.

이 큰 광경들을 본 선지자들은 그 의미를 좀더 충분히 깨닫고자 갈망하였다. 그들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벰전 1:10~12). ...

위를 쳐다보라. 위를 쳐다보고 그대의 믿음을 계속 증가하게 하라. 이 신앙이 그대를 성의 문들을 통하여 구속받은 이들을 위한 위대한 내세, 넓고 무한한 영광의 미래로 인도하는 좁은 길로 안내하게 하라. -선지자와 왕, 731, 732.

가을 집회

주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엡 5:16)

일시: 2025년 10월 22일(수)~10월 26일(일)

주님의 오심의 징조들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소리 외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로

온 세상을 그분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의의 기별자들의 말씀과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모두 오셔서

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집회 때 세족예식과 성찬식이 있을
예정이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시작하라!

- 바버라 몬트로즈

우리 인간의 삶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는 이 세상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여기에 있다.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현재의 진실에 집중하기 위해:
모든 산만함에서 벗어나라!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주님의 임재 안에 확고하게 머무르라.

우리의 평생 여정은 장난이 아니다,
그분께서 주신 선물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따르는 계획을 세우라
그리고 담대하고 용감하게 그분의 길을 선택하라!

멀고 가까워서 영혼들이 진리를 찾고 있다;
그대가 아는 누군가가 갈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탐색하는 마음 속에 묻힌 채
불꽃에 불이 붙고 서서히 타오른다.

이제 솔직한 진실을 말할 때이다.
더 이상 다툼과 분파는 없다.
더 이상 터덜대거나 변명하지 말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 믿음을 보여주자!

길을 잃은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고 있다;
지금은 한가하게 기회를 노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진다.
지금 바로 전진할 때이다!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품고
그리고 숯불에 불붙은 입술로
이제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 제 발걸음을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로 인도하소서!”

해가 지고 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명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크고 분명하게 부르신다.
그래,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서 나아가라!